



정답과 해설



본책	2
실력 플러스	33



1. 문학과 소통

(1) 꽃

갈래	현대시
제재	꽃
주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함.
특징	①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냄. ②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9쪽

01 ② 02 ⑤ 03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함.

- 01 '하나의 몸짓'은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 '그'가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 02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참된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로가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03 이 시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본문 10~12쪽

01 꽃 02 ② 03 ② 04 길들이기(길들임) 05 ④ 06 ③ 07 ⑤

- 01 '나'가 이름을 불러 주기 전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으나 '나'가 이름을 불러 준 뒤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 02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누군가 자신의 '빛깔과 향기', 즉 '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고 '나'의 존재를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03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는 서로 관계를 맺기 전의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구는 이름이 불리기 전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의 몸짓'이다.
- 04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바뀐 것은 서로를 길들였기 때문이다.
- 05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06 2연에서 '나'와 '그'의 관계가 의미 있게 변한 것은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기 때문이다. 즉, '나'는 '그'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지 '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07 <꽃>의 주제 의식을 살려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행위인 '이름 부르기'를 '밥 먹기'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우리말 톡톡

본문 12쪽

- ① 날갯짓, ② 배넛짓, ③ 우스갯짓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14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은 '우리' 모두 '하나의 눈'처럼 잊히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함을 의미한다.

- 01 이 시의 화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빛깔과 향기, 즉 본질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본질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알아봐 주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몸짓'은 무의미한 존재를, '꽃, 무엇,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 03 이 시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소

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대인들의 관계 맺음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4 ㉠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길들이는 행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 05 '하나의 눈짓'은 '하나의 몸짓'과 달리 유의미한 존재를 의미한다. ㉠은 3연의 '나'의 소망이 '우리'로 확대된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15쪽

01 ㉠: (하나의) 몸짓, ㉡: 꽃, ㉢: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 02 <보기>에서 '고유한 모습'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빛깔과 향기'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 03 ㉠: 심미적 체험 ㉡: 작품에 대한 정서적(심미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어./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자신의 삶 또는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등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 ㉡에 들어갈 시구를 바르게 찾아 쓴 경우	각 2점	7점
㉢에 들어갈 시의 주제를 적절히 쓴 경우	3점	
㉢을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시구를 바르게 찾아 쓴 경우	2점	4점
이유를 포함하여 쓴 경우	2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 '심미적 체험'을 정확히 쓴 경우	2점	6점
㉡: 심미적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히 쓴 경우	4점	
㉢을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2)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갈래	현대 소설
배경	· 시간: 현대 · 공간: 어느 동네
제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
주제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
특징	① 서술자('나')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냄. ②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이 잘 드러남. ③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음.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7~23쪽

01 ① 02 ④ 03 쟁이 04 ④ 05 ④ 06 '그이'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독자들이 '그이'가 누군지 궁금하게 만들려고 07 ⑤ 08 ③ 09 ④ 10 야채나 과일을 파는 사람/야채·과일 장수/상인 11 야채를 살 수 있는 시장이 멀고, 그가 오랫동안 믿을 만한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다. 12 ⑤ 13 ⑤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⑤ 19 느리지 않은 말투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 20 ④

- 01 (가)~(나)에서 서술자는 동네의 분위기, 인물들의 특징을 관찰과 묘사로 서술하고 있다.
- 02 (가)에서 서술자는 다른 곳에 비해 예술인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을 동네의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다.
- 03 동네 카페의 주 고객층인 '쟁이'란 동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예술가를 지칭하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나'는 어느 곳과는 다른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에 대해 말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05 '나'가 말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예술가는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 06 (라)에서 서술자는 첫 번째 예술가인 '그이'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직업이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야기를 전개하여 '그이'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07 '나'는 김밥 아줌마가 오직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해서 만들어 낸 환상적인 맛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 08 ‘나’는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며 긍정적,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9 어쩔 수 없는 때를 빼놓고 매일 장사하러 오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0 ‘그’는 트럭에 양파, 버섯, 복숭아, 포도 등을 싣고 다니며 파는 사람이다.
- 11 시장이 동네에서 멀어 가기 힘들고, 그는 동네에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이어서 사람들은 그의 물건을 믿고 산 것이다.
- 12 ‘그’는 물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를 궁금해하고, 혹여나 불만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찾는 데 몰두한다.
- 13 ‘나’는 ‘그’의 성실함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존심, 자부심을 보고 그가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예술가라고 말하고 있다.
- 14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자신의 삶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 모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다.
- 15 김대호 씨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에 속력이 붙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도 뛰는 것이 귀찮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김대호 씨의 발걸음이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 16 ㉠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김대호 씨의 말투가 매우 느리고,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17 김대호 씨가 ‘이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에서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 18 자신에게 한 충고를 듣고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통해 김대호 씨가 다른 이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포용력 있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9 (타)에서 김대호 씨는 말투를 고치라는 동료의 충고를 듣기로 하였으므로 사무실 식구들이 기대하는 ‘세련된 말’은 느린 말투로 ‘제가 긴데요.’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

는, 느리지 않은 말투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0 (하)에서 ‘나’는 김대호 씨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하며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서도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24~26쪽

01 ㉣ 02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예술가적인 고집을 갖고 있다. 03 ㉤ 04 ㉠ 05 ㉠ 06 ㉡

- 01 김밥 아줌마는 자신이 김밥을 팔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린다며 사람들에게 성질을 낸다고 하였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수록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은 아니다.
- 02 최고의 물건만 판다는 빵떡모자 아저씨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일에 관한 자신감과 자부심, 예술가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 03 김대호 씨는 느리지만 맑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고 잔피를 부리지 않아 일에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 04 이 소설에서 야채와 과일을 파는 ‘그’가 빵떡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였으나 왜 빵떡모자를 쓰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05 ‘나’는 김밥 아줌마가 오로지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뿐 파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김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익과 김밥을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이 글에서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느리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등 평범한 우리 이웃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말 **톡톡**

본문 26쪽

- 묵묵히, 일일이, 자연히

- ‘말없이 잠잠하게.’라는 뜻의 단어는 ‘묵묵히’이고,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뜻의 단어는 ‘일일이’가 옳다.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라는 뜻의 단어는 ‘자연히’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28~29쪽

01 ② 02 ④ 03 잘 웃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 04 ③ 05 ③ 06 ② 07 느리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기 때문이다.

- 01 (가)~(마)의 서술자인 ‘나’는 관찰과 묘사를 통해 ‘그이’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그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02 (라)에서는 김밥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거나 쳐다보는 것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김밥 만드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려 하는 ‘그이’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이’의 김밥 마는 실력이 서툴다고 볼 수는 없다.
- 03 (나)를 통해 ‘그이’의 평소 모습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04 ‘나’가 ‘그이’가 만든 김밥을 작품이라고 한 이유는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이 보통의 김밥과 다른 환상적인 맛을 내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하는 예술가적 태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김밥 아줌마와 친분이 있어서 ‘작품’이라고 칭찬 것은 아니다.
- 05 (나)에서 ‘그’가 장사를 집어치우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보다 더 좋은 마늘을 파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므로 이를 통해 ‘그’가

끈기 없는 성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라)~(사)에서는 김대호 씨의 느리고 긴 외양과 행동을 통해 그의 느리고 낙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김대호 씨는 대인 관계가 좋은 긍정적인 인물로, 인물 간의 갈등이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07 ㉠에서 ‘나’는 요즘처럼 정신없는 세상에서는 김대호 씨처럼 길고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김대호 씨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30쪽

01 서술자인 ‘나’는 등장인물들을 긍정적(우호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가)에서는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며 그 맛을 칭찬하였고, (나)에서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그’를 ‘예술가’라고 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02 ㉠은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긴데요.”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김대호 씨를 스스로없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 김대호 씨가 그만큼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적절히 밝힌 경우	2점	6점
판단의 근거를 (가), (나)에서 적절히 찾아 쓴 경우	각 2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의 이유를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4점
김대호 씨의 품성에 관해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형식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더 읽어 보기 - 어머니는 왜 숲속의 이슬을 털었을까

갈래	수필
제재	어머니의 이슬 떨어
주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생길의 진정한 의미
특징	①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음. ②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형식으로 쓰임. ③ 친근하고 정감 어린 대화체를 사용함.

더 읽어 보기

본문 31~34쪽

01 ④ 02 ③ 03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절 04 ③ 05 ⑤ 06 ④ 07 ④ 08 ③ 09 아들인 '나'가 걷는 길을 편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10 ② 11 (어머니가 품속에 넣어 온) 새 양말과 새 신발 12 ④ 13 ① 14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15 길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고 친근한 어조로 쓴 수필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쓰였다.
- 02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에서 학교까지 5리쯤 산길을 걸어가야 했고, 중학교 때는 아침저녁으로 20리 길을 걸어 다녀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03 '나'가 살던 오지 마을에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절의 일'이라고 한 것에서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04 이 글은 마치 대화를 하듯 차분하고 평온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05 (나)~(다)를 통해 '나'가 학교 가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6 (다)에서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어머니는 매를 듣거나 강압적으로 훈육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 07 '나'는 이전까지 자신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던 어머니가 지렛대기를 들고 서 있자 그 모습이 조금 낯설고 무서운 마음에 마당에도 내려서지 못하고 멈칫거린 것

이다.

- 08 '이슬받이'는 양쪽에 이슬이 맺힌 풀이 우거진 좁은 길이다. 그 길을 걸어오면 '나'와 '어머니'의 옷이 모두 젖게 된다.
- 09 ㉠은 아들이 걷는 길을 편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드러난다.
- 10 ㉡에서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고 있으며, 이어진 내용에서 내일부터는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나'가 학교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1 새 양말과 새 신발을 품속에 넣어 들고 와 아들에게 신기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12 어머니는 어차피 아들의 옷이 이슬에 젖을 것임을 알았지만,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슬을 떨어내어 힘든 등갯길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 13 '이슬'은 자식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비들을 의미하고 이를 떨어 주는 어머니의 행위는 자식의 힘들음을 털어 주고자 하는 사랑과 헌신을 의미한다. 떨어 주신 이슬이 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14 '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통해 인생의 고비를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머니가 떨어주신 이슬들이 모여 흐르는 강으로 표현하고 있다.
- 15 글쓴이는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며, 그것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였다.

대단원 완성 문제

본문 35~37쪽

01 ③ 02 그, 우리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① 08 ③ 09 ③ 10 ⑤ 11 '나'의 생각에 동의한다. 빠르게만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혼자서만 느리게 산다면 의도치 않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 ③

- 01 이 시는 존재의 인식과 의미 있는 관계에 관한 시로 역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02 1연에서 무의미한 존재였던 ‘그’는 2연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4연에서 화자는 ‘그’와 ‘나’의 관계를 ‘우리’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 03 이 시에서 ‘이름 부르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상대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맺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04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는 상대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존재이다. 이 시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시어는 ‘꽃’, ‘무엇’, ‘눈짓’이다.
- 05 (다)에서 ‘나’가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나 그를 비판하거나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 06 ‘그’는 자신의 물건을 자랑하느라고 입이 쉴 새가 없다고 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이(김밥 아줌마)’에게만 해당된다.
- 07 (마)에서 ‘그’가 장사를 집어치울 것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파는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에서 한 말이지 실제로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 08 김대호 씨는 행동이 빠르지는 않지만, 맡은 일을 진득하게 해내는 것으로 보아 게으른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9 (가)~(다)의 서술자 ‘나’는 김대호 씨의 특징과 그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대호 씨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10 (다)에서 김대호 씨는 단 한 번의 시도를 끝으로 자신의 느린 말투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었으며, 자신의 느린 말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끈기 있게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1 ㉠에서 ‘나’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쉴 틈이 없는 사회

에서 김대호 씨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다.

- 12 (라)에서 ‘나’는 자신을 위해 먼저 나가 이슬을 떨어 주시는 어머니의 행동에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더 이상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

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1)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갈래	중수필
제재	시계, 달력
주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징	①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달력’과 ‘시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함. ② 소재목을 붙여 내용을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41~45쪽

- 01 ㉠ 02 ㉡ 03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생활했다./우리 조상들의 삶에서는 정확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다.
04 ㉠ 05 자연 06 ㉠ 07 ㉠ 08 ㉠ 09 계절과 상관 없이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 10 ㉠ 11 ㉡ 12 ㉠ 13 ㉠
14 ㉡ 15 그러나, 한다.

- 01 옛사람들은 농사일을 해야 할 때를 알려 주는 달력을 요긴하게 사용했다. 시간을 알려 주는 시계는 귀한 물건이었으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 02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의미를 찾거나 앞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 03 우리 조상들에게 정확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조상들은 자연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일을 했기 때문이다.

- 04 ㉠에서 독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05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했는데, 달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 06 우리 조상들은 달력에 기록된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를 지을 때 진도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 07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달력보다 시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 08 글쓴이는 공업이 자연을 닦달하여 필요한 자원을 마구 빼앗아 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 09 공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농산물을 수확하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 10 옛 조상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농사를 지었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충고를 통해 자연 변화에 대비했다.
- 11 글쓴이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옛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중시한다. ㉡는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 12 소 떼의 증가는 사막의 면적이 넓어진 원인으로, 사람들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행동에 해당한다.
- 13 글쓴이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14 ㉢은 자연을 돌아보는 여유 있는 마음, 자연의 질서와 계절의 흐름을 따르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농업도 시간을 중시하며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공업 대신 농사 짓는 삶만을 추구하는 것과 ㉢은 거리가 멀다.
- 15 글쓴이는 (바)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에게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여유 있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46~51쪽

- 01 ㉢ 02 ㉡ 03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읽고 구절의 의미를 파악했다./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구절의 의미를 짐작했다. 등
- 04 ㉠ 05 ㉡ 06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등
- 07 ㉣ 08 ㉣ 09 ㉢ 10 ㉡ 11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2 ㉠ 13 ㉡ 14 ㉡
- 01 옛사람들은 '동창이 밝아 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그치는 식으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농사일을 했다.
- 02 옛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를 담은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 03 <보기>의 학생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뒤에 이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 04 글쓴이는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는 인간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에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 05 글을 읽을 때 문제를 해결하며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적극적인 읽기를 할 수 있다.
- 06 질문을 만들어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누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07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읽기 수준에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 08 선정한 책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책의 제목과 목차를 살펴봄에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 09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
- 10 박사가 물건을 집는 모습을 보고 원숭이의 뇌에서 직접 물건을 집을 때 반응하는 뉴런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를

‘겨울 뉴런’이라고 한다.

- 11 글쓴이는 ‘겨울 뉴런’의 발견이 뇌 과학 분야에 있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 12 ‘겨울 뉴런’은 다른 대상을 모방하는 정서적·행동적 특성과 관련한 것으로 날씨에 따라 감정이 변화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13 단어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고,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뜻을 추론할 수도 있다.
- 14 모둠원들과 질문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며 책을 읽으면 읽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의견 교환을 통해 책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우리말 톡톡

본문 51쪽

- ㉠ 망중, ㉡ 동지, ㉢ 경칩

- 이십사절기 가운데 ㉠은 6월 6일 무렵의 망중, ㉡은 12월 22일 무렵의 동지, ㉢은 3월 5일 무렵의 경칩에 대한 설명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53~54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바꾸면서 사막의 면적이 늘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며 홍수나 가뭄 등이 발생했다.

- 01 (라)를 통해 옛사람들은 가을의 시작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를 심었음을 알 수 있다.
- 02 단어의 의미를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 앞뒤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도 있고,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 03 절기는 계절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절기를 놓친다는 것은 농사 짓기에 적절한 계절을 놓치는 것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04 (나)를 통해 공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뒤흔치고 재촉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달력’은 자연의 질서를 지키며 자연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시계’는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시간을 돈으로 여기며 조급하게 사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06 ④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자는 글쓴이의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07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소의 수를 증가시키고 ‘철 없는 과일’을 재배함에 따라 사막화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더욱 잦아졌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55쪽

01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하였다. 02 조상들은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절기를 농사 진도 표라고 표현했다. 03 공업 사회에서 공업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농업 또한 계절과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달력보다 시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04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자고 당부하기 위해 자연을 따르고 신경 썼던 조상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글쓴이는 나라를 다스릴 때조차 자연을 신경 썼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자세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를 바탕으로 독자가 겪은 문제를 적절히 쓴 경우	2점	4점
<보기>에서 독자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쓴 경우	2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절기와 농사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유를 쓴 경우	3점	4점
주어진 문장 형식에 따라 쓴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공업 사회에서 시계를 중시하는 이유를 쓴 경우	2점	7점
공업 사회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특징을 쓴 경우	각 2점	
주어진 문장 형식에 따라 쓴 경우	1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쓰기가 ㉠을 언급한 이유를 적절히 밝힌 경우	2점	4점
(라)에 나타난 글쓰이의 당부와 연관 지어 쓴 경우	2점	

(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 쓰기 –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갈래	수필(여행지 소개 글)
제재	청산도 '슬로길'
주제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특징	①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함. ② 사진과 지도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 ③ 블로그의 특성이 잘 드러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57~61쪽

01 ② 02 청산도를 여행한 경험/주말에 청산도를 다녀옴.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슬로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 08 ② 09 ④ 10 ⑤ 11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음. 12 ④ 13 ④ 14 ⑤ 15 비유 16 ② 17 독자에게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18 ①

01 지우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

02 지우는 지난 주말에 청산도를 여행했는데, 청산도가 아

름답다고 생각해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한다.

03 지우는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04 지우는 청산도의 '슬로길'을 중심으로 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청산도의 역사'와 '청산도 주변 관광지'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05 지우는 자신의 배경지식만으로는 글을 쓰기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추가로 자료를 찾아보려 한다.

06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마련한 내용의 제시 순서를 고려하고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나 더 넣을 내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07 지우는 개요를 작성하고 부족한 내용이 없는지 살핀 후에 주제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08 (가)에서 청산도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완도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완도나 다른 주변의 섬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09 지우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소개하려는 여행지인 청산도를 독자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10 지우는 쓰기 윤리를 지켜 사진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11 지우는 주변의 경치와 볼거리를 언급하며 1, 4, 5번 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12 (다)~(마)에서는 각 코스별 특징과 풍경, 느낌 등을 서술하고 있다.

13 지우는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흔들리다'가 아닌 '일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14 지우는 1번 코스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에 링크를 걸어 두었다.

- 15 (라)에서 지우는 4번 코스를 걸을 때의 느낌을 바다 위를 걷는 것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16 장기미 해변은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아 공룡알 해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 공룡알이 많은 것은 아니다.
- 17 지우는 글의 '끝' 부분인 (바)에서 독자에게 청산도 여행을 권하며 글을 인상 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 18 지나치게 긴 문장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길이로 쓰는 것이 좋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62~65쪽

01 표현하기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고쳐쓰기 10 ⑤

- 01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알맞은 표현을 활용해 내용을 효과적이면서도 인상 깊게 전달해야 한다.
- 02 지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지,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고민했다.
- 03 <보기>에서 단양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으므로 방문객 조사 보고서는 적절하지 않다.
- 04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흐름이 자연스러울지 고민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 05 글에 쓸 내용을 마련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 06 ③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글에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7 단양 이외에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에 대한 설명은 글의

- 주제와 거리가 멀다.
- 08 블로그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누리집에 링크를 걸어 독자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 09 제시된 내용은 글을 고쳐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 10 쓰기는 <보기>와 같이 글쓰기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우리말 톡톡 본문 65쪽

● (1) 지름길, (2) 에움길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67~68쪽

01 ③ 02 ② 03 ② 04 청산도를 먼저 소개한 후에 '슬로길'의 세 코스를 소개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05 ③ 06 ③ 07 ④ 08 사진이나 그림을 글과 함께 제시한다./'구들장논'을 설명한 누리집을 연결한다. 등

- 01 (다)는 개요를 작성하며 앞에서 마련한 내용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고 추가해야 할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 02 지우는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 03 지우는 (나)에서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자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을 뺐다.
- 04 지우는 (나)에서 마련한 내용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할 때,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위해 청산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05 5번 코스에는 범바위, 구들장논, 장기미 해변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볼거리가 많다.

- 06 (라)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 07 ㉠은 범바위 정상에 올라가 풍경을 바라보며 받은 인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08 블로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거나 관련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69쪽

01 글쓴이는 슬로길 코스 구성과 유래, 풍경, 이름의 의미 등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02 이 글의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이기 때문에 <보기>와 같이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삭제했다. 03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4 ㉠은 5번 코스에 관한 내용이고, ㉡은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므로 문단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쓴이가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밝힌 경우	2점	5점
'슬로길'의 어떤 특징을 언급하였는지 쓴 경우	2점	
한 문장으로 쓴 경우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쓴이가 <보기>의 내용을 삭제한 이유를 쓴 경우	2점	5점
이 글의 주제를 포함하여 쓴 경우	2점	
한 문장으로 쓴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쓴이가 문제를 해결하여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적절히 쓴 경우	2점	2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쓴이가 ㉠과 ㉡에서 문단을 구분하려는 이유를 적절히 밝힌 경우	2점	3점
한 문장으로 쓴 경우	1점	

더 읽어 보기 - '왜?'라고 묻기, 답을 찾기, 평가하기

제재	설명문
제재	책 읽기 방법
주제	글을 읽을 때 '왜?'라고 묻고 답하며, 답을 평가해 보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특징	① 글쓴이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책 읽기의 단계를 소재목별로 제시함. ② <홍부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더 읽어 보기

본문 70~72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답을 평가하기, ㉡: 질문하기, ㉢: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09 책을 제대로 읽자./제대로 읽으면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 01 (가)에서 글쓴이는 등장인물과 즐거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02 책을 읽으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읽기를 위한 첫 단계이다.
- 03 우선 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야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04 (다)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왜?'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정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05 [A]는 놀부가 홍부를 내쫓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놀부의 입장에서 대답한 것이므로 놀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 06 [B]와 같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정리할 때에는 특별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대답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 07 <보기>는 놀부의 입장에서 홍부를 내쫓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는 놀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 ㉡, ㉢, ㉤는 놀부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홍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 08 ㉠은 <홍부전>을 읽으며 놀부의 행동에 '왜?'라고 질문을 한 것이며, ㉡은 ㉠의 질문에 대해 놀부의 입장에서 대답한 것이다. 한편 ㉢은 ㉡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09 글쓴이는 깊이 있는 읽기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제대로 책을 읽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08 글쓴이는 끝 부분에서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독자에게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9 공업 사회에서는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자연을 달달하여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았으므로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 (가)~(나)의 독자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글을 읽고 있다. 또한 (다)~(마)의 글쓴이는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읽기와 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11 독자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비닐하우스에 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였다.

12 지우는 자신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찾을 때에는 그 출처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대단원 완성 문제

본문 73~75쪽

01 ㉔ 02 ㉔ 03 소가 초식 동물이라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㉔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04 ㉔ 05 ㉔ 06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이 제시되어야 한다.) 07 ㉔ 08 글쓴이는 독자에게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자 했다. 09 ㉔ 10 ㉔ 11 ㉔ 12 글에 쓸 자료를 마련할 때에는 그 출처를 기록해야 한다.

01 <보기>는 절기에 따라 농사일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 조상들이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나)의 뒷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2 현대인들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바꾼 결과,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현대인들이 자연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은 (라)의 소재목이 적절하다.

03 <보기>에서 독자는 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소가 초식 동물이어서 풀을 먹는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그 의미를 짐작했다.

04 (다)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정민이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05 여행 시 주의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가)에서는 청산도를 소개하고, (나)에서는 ‘슬로길’을 소개하고 있다. (다)~(마)는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제시된 개요를 참고할 때, (나)와 (다)의 사이에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07 ㉔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3. 소중한 우리말

(1) 우리말의 음운 체계



본문 확인 문제

본문 79~86쪽

- 01 뜻, 작은 02 ㉠ 03 ㉠ 2개 ㉡ 2개 ㉢ 3개 ㉣ 3개 04 ㉢
 05 ㉢ 06 ㉠: 단모음, ㉡: 이중 모음 07 ㉤ 08 ㉣ 09 ㉣
 10 ㉣ 11 (1) ㉠, ㉡, ㉢ (2) ㉠ (3) ㉠ 12 ㉡ 13 ㉣ 14 ㉠
 15 ㉣ 16 ㉤ 17 (1) ㉢ (2) ㉠, ㉡, ㉢ (3) ㉠ (4) ㉠, ㉡ (5) ㉢
 18 ㉣ 19 ㉤ 20 ㉢ 21 ㅎ+ㅏ+ㄴ+ㅡ+ㄹ, ㄹ 22 ㉠ 23 ㉤
 24 ㉢ 25 ㉡ 26 소리의 길이 27 ㉡, ㉢ 28 ㉤

- 01 음운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이다.
- 02 ‘ㅂ’과 ‘ㄹ’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이고, ‘ㄱ’과 ‘ㅇ’이 달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 03 ㉠은 ‘ㄱ+ㅏ’, ㉡은 ‘ㅁ+ㅓ’, ㉢은 ‘ㄴ+ㄱ+ㅏ’, ㉣은 ‘ㅈ+ㅣ+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04 ‘말 : 불’은 첫소리 ‘ㅁ’, ‘ㅂ’과 가운데소리 ‘ㅏ’, ‘ㅇ’이 다른 단어 쌍이다.
- 05 우리말의 모음은 21개이고, 자음은 19개이다.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데 비해, 자음은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온다. ‘ㄱ’, ‘ㄷ’, ‘ㅃ’은 자음이고, ‘ㅓ’는 모음이다.
- 06 우리말의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한다.
- 07 ‘ㄱ’, ‘ㄴ’, ‘ㅈ’, ‘ㅊ’은 모두 이중 모음이지만 ‘ㅊ’은 단모음이다.
- 08 ‘양궁’과 ‘유도’에는 각각 이중 모음 ‘ㅑ’와 ‘ㅕ’가 쓰였다.
- 09 ‘ㅣ’, ‘ㅓ’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고, ‘ㅡ’, ‘ㅗ’, ‘ㅏ’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이다.
- 10 ‘ㄱ’은 고모음, ‘ㅊ’, ‘ㅓ’, ‘ㅕ’는 중모음, ‘ㅈ’은 저모음이다.

- 다. 따라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모음은 ‘ㅓ’이다.
- 12 ‘ㅡ’, ‘ㅣ’, ‘ㅏ’, ‘ㅓ’는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지 않는 평순 모음이지만, ‘ㅕ’는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는 원순 모음이다.
- 13 ① ‘ㅊ’은 단모음, ‘ㅈ’은 이중 모음이다. ② ‘ㄱ’과 ‘ㅣ’는 평순 모음이다. ③ ‘ㅓ’는 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⑤ ‘ㅏ’는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다.
- 14 ‘거센소리’는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눈 것이다.
- 15 ‘ㅁ, ㅂ, ㅃ, ㅍ’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이지만, ‘ㅇ’은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16 ‘수달’에는 잇몸소리 ‘ㅅ, ㄷ, ㄹ’이 쓰였고, ‘노루’에는 잇몸소리 ‘ㄴ, ㄹ’이 쓰였다.
- 17 ‘ㅇ’이 목청소리가 아니라 여린입천장소리임에 유의해야 한다.
- 18 ㉠은 마찰음, ㉡은 파찰음, ㉢은 파열음에 관한 설명이다.
- 19 ‘ㅈ’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어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인 파찰음이다. 나머지 ‘ㄱ’, ‘ㅍ’, ‘ㅌ’, ‘ㅍ’은 파열음이다.
- 20 ‘냉면’에는 비음 ‘ㄴ, ㅇ, ㅁ’이 쓰였다.
- 21 ‘하늘’은 ‘ㅎ+ㅏ+ㄴ+ㅡ+ㄹ’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음은 ‘ㄹ’이다.
- 22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는 ‘ㄱ, ㄷ, ㅃ, ㅅ, ㅆ’와 같은 된소리이다.
- 23 ①은 예사소리(ㄱ), 된소리(ㅅ), 거센소리(ㅋ), ②는 모두 예사소리, ③은 모두 된소리, ④는 예사소리(ㅅ, ㅈ), 된소리(ㅆ, ㅊ)가 제시되었다.
- 24 예사소리에 비해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된소리이다. ③에는 된소리 ‘ㅆ’이 사용되었다.
- 25 센입천장소리에는 ‘ㅈ, ㅊ, ㅊ’이 있다.
- 26 주어진 문장을 읽을 때, ‘밤[夜]’은 [밤]으로, ‘밤[栗]’은

[밤:]으로 읽는다. 즉, 소리의 길이를 통해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 27 ㉠ ‘말[馬]’, ㉡ ‘병[瓶]’은 각각 [말], [병]으로 짧게 발음한다. ㉢ ‘말[語]’, ㉣ ‘병[病]’은 길게 발음한다.
- 28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ㄹ, ㄴ, ㅇ’이 해당된다. 밑줄 친 단어에는 유음 ‘ㄹ’이 쓰였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87~90쪽

- 01 ㉤ 02 혀의 높낮이 03 ㉢ 04 ㉠ 잇몸소리 ㉡ 마찰음
 ㉢ 된소리 05 ㉡ 06 (1) ㄱ, ㄴ (2) ㄱ, ㄴ (3) ㅈ (4) ㅉ 07 ㉠
 08 ㉠ 된소리, ㉡ 음운 09 ㉡ 10 [다끄면] 11 ㉠ 파열음
 ㉡ 예사소리 12 ㉠ [성인] ㉢ [성·인] 13 ㉣

- 01 단모음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전설 모음과 뒤쪽인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 02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좌측부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한 것이다.
- 03 ㉠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파열음이다. ㉡ ‘ㄴ’은 잇몸소리이면서 비음이다. ㉣ ‘ㄹ’은 잇몸소리이면서 유음이다. ㉤ ‘ㅁ’은 입술소리이면서 비음이다.
- 05 실제 발음에 따라 음운을 분류하되, ‘야’는 모음 ‘ㅏ’로 시작하는 음절임에 유의해야 한다.
- 06 제시된 단어에 쓰인 자음은 ‘ㄷ, ㄹ, ㅁ, ㅂ, ㅅ, ㅌ, ㅍ’이고 모음은 ‘ㅏ, ㅓ, ㅗ, ㅛ, ㅜ, ㅠ’이다.
- 07 ‘간다’에 쓰인 자음은 ‘ㄱ, ㄴ, ㄷ’인데 ‘ㄱ, ㄷ’은 파열음이고, ‘ㄴ’은 비음이다.
- 08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말 음운 체계의 특징이다.
- 09 ‘개’는 중모음, ‘배’는 저모음이므로, ‘개’를 발음할 때에는 ‘개’보다 혀를 더 높이고 입을 덜 벌려야 한다.

- 10 예사소리 ‘ㄷ’을 된소리 ‘ㄷ’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으므로, [다끄면]으로 발음해야 한다.
- 12 ㉠과 ㉡은 소리의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
- 13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인 ‘눈’은 [눈:]으로 발음한다.

우리말 **톡톡**

본문 90쪽

- ㉣

- <보기>의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뜻하는 말이다.

수단원 **종합 문제**

본문 92~93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1) ㅈ
 +ㅈ+ㅈ+ㅈ+ㅈ (2) 헛바닥, 센입천장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ㄴ+ㅈ+ㄴ

- 01 ‘조’라는 음절을 구성하는 음운의 수는 2개이고, 우리말에는 21개의 모음과 19개의 자음이 있다. ‘소리의 높이’로는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 02 ‘ㅏ, ㅓ’는 단모음, ‘ㅗ, ㅛ’는 이중 모음이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발음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다.
- 03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모음을 전설 모음, 뒤쪽인 모음을 후설 모음이라고 한다. 후설 모음에는 ‘ㅓ, ㅜ, ㅗ, ㅛ, ㅜ’가 있다.
- 04 ‘ㅏ’는 단모음이며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모음으로 분류된다.

- 05 단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②는 고모음, ①, ③, ④, ⑤는 중모음이다.
- 06 ㉠은 입술소리, ㉡은 잇몸소리, ㉢은 셴입천장소리, ㉣은 여린입천장소리, ㉤은 목청소리가 소리 나는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③ ‘ㅍ’은 잇몸소리이다. ④ ‘ㅎ’은 목청소리이다. ②, ⑤ ‘ㅇ’과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07 ‘주차’에 쓰인 자음은 ‘ㅈ’과 ‘ㅊ’이므로 모두 혃바닥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
- 08 ② 잇몸소리는 ‘ㄴ, ㄷ, ㅌ, ㅍ, ㄹ, ㅍ, ㅍ’ 총 7개이다. ③ ‘ㅌ, ㅍ’이 된소리이다. ④ ‘ㅌ’이 거셴소리이다. ⑤ ‘ㄴ’이 비음, ‘ㄹ’이 유음이다.
- 09 ① 파열음 ② 비음 ③ 마찰음 ④ 파찰음 ⑤ 유음에 대한 설명이다.
- 10 ‘ㄱ’, ‘ㅍ’은 파열음이고 ‘ㅊ’은 파찰음이며, ‘ㄹ’은 비음이다.
- 11 ㉠, ㉡에는 공기의 흐름이 막힌 부분이 있고, ㉢, ㉣에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은 파열음, ㉡은 마찰음, ㉢은 파찰음을 소리 내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ㅊ, ㅍ’은 파찰음, ‘ㄱ’은 파열음, ‘ㅎ’은 마찰음이고 ‘ㅇ’은 비음이다.
- 12 ‘ㄱ, ㅇ, ㄴ’은 모두 비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13 ‘ㄱ, ㅌ, ㅍ, ㅊ’은 거셴소리이다. 거셴소리는 성대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숨이 거셴게 나오는 소리이다.
- 14 ①~④는 소리의 길이가 길게 나지만, ⑤의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고통’을 뜻하는 ‘벌’은 [벌]로 짧게 발음한다.
- 15 ① 유음 ‘ㄹ’이 사용되었다. ② 파찰음 ‘ㅈ’, 마찰음 ‘ㅅ’이 사용되었다. ③ 전설 모음 ‘ㅣ’와 후설 모음 ‘ㅏ, ㅑ’가 사용되었다. ④ 고모음 ‘ㅜ, ㅡ’, 중모음 ‘ㅓ’가 사용되었다. ⑤ ‘ㄱ, ㄷ’은 예사소리이고, ‘ㄴ’은 비음이다.
- 16 ‘눈[눈]’은 [눈:]과 같이 길게 발음해야 하며, 자음 ‘ㄴ’은 잇몸소리이면서 비음이다. 모음 ‘ㅜ’는 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이고 원순 모음이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94쪽

- 01 혃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입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 02 소리 내는 방법, ㉠ 마찰음, ㉡ 파찰음, ㉢ 파열음 03 입술소리: ㅁ, 잇몸소리: ㅅ, ㄴ, ㄷ, 셴입천장소리: ㅍ, ㅊ, 여린입천장소리: ㄱ, ㄱ / 전설 모음: ㅑ, ㅑ, 후설 모음: ㅏ, ㅑ, 고모음: ㅜ, 중모음: ㅓ, ㅑ, 저모음: ㅏ, 평순 모음: ㅏ, ㅑ, 원순 모음: ㅑ, ㅑ
- 04 • ㉠: [잘라서] → [잘라서]/[잘] → [잘] • ㉡: [따고면] → [다고면]/[따] → [다] • 공통적 문제: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 05 돌리가 지혜와 덕이 뛰어난 분이라는 의미의 ‘성인’을 [성:인]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어른이란 의미의 성인[성인]으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혀의 높이가 변화와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변화를 바르게 쓴 경우	각 2점	4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분류 기준을 옳게 밝힌 경우	1점	4점
소리 내는 방법 세 가지를 옳게 쓴 경우	각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자음과 모음을 기준에 따라 적절히 분류한 경우	각 4점	8점
오답이 있을 경우	-1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수정 전후 발음을 [] 안에 제대로 쓴 경우	각 2점	6점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적절히 쓴 경우	2점	

05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돌리의 발음에서 원인을 찾아 쓴 경우	2점	4점
단어의 의미를 밝혀 쓴 경우	2점	

(2) 통일 시대의 우리말

갈래	설명문
제재	남북한의 언어
주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
특징	① 캐릭터가 등장하여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함. ② 다양한 예를 들어 남북한의 맞춤법과 어휘의 차이를 설명함. ③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96~100쪽

01 ③ 02 ③ 03 남한: 한글 맞춤법(1988), 북한: 조선말 규범집(2010) 04 ① 05 ⑤ 06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07 ⑤ 08 ④ 09 북한의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10 ④ 11 ④ 12 ② 13 ④ 14 남북한 학술 교류,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15 ③

- 01 남북한의 언어는 맞춤법과 어휘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 02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커지면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어 상호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멀어져 남북 교류와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03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1988)’을 따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2010)’을 따르고 있다.
- 04 <보기>는 같은 어휘를 썼지만, 이를 표기함에 있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 05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쓰나, 북한은 남한보다 붙여 쓰는 경우를 넓게 잡아 의존 명사의 경우에도 붙여서 쓴다.
- 06 ‘표준어 규정’에 표준어 사정 원칙을 밝히고 있다.
- 07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현재 북한의 규범적 언어는 문화어이며 평양말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 08 ‘망돌, 가마치, 계사니’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로 각각 표준어 ‘맷돌, 누룽지, 거위’에 해당한다.
- 09 북한에서 ‘동무’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로 쓰인다.
- 10 ‘세포’는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 11 ①, ③, ⑤는 남한에서 주로 쓰는 ‘바쁘다’의 의미이다.
- 12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어 쓰기 시작하였다. ‘음반’을 ‘소리판’으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 13 ‘밥공장’과 ‘인민배우’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에서 새로 만든 말이다.
- 14 남북한의 학술 교류가 있었고,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다.
- 15 어휘 통합의 방식에는 남한 어휘로 단일화, 북한 어휘로 단일화, 남북한 어휘를 모두 인정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101~106쪽

01 ③ 02 ㉠: 두음 법칙 ㉡: 사이시옷 03 ② 04 ④ 05 두음 법칙의 인정 여부/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여 ‘양식’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량식’이라고 쓴다. 06 메돼지, 퇴마루 07 두개(의) → 두 개(의) 08 ② 09 궁전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정윤이는 민석이 사용된 외래어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5 지수는 인사말 정도로 한 말이었는데 미회는 곧 약속을 잡는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01 남북한 모두 표준어와 문화어를 제정하는 등 언어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상호 교류가 없었고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이 언어에 영향을 미쳐 차이가 발생하였다.
- 02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남한은 ‘이용’이라 쓰고, 이를 인

정하지 않는 북한은 ‘리용’으로 표기한다. 또한 사이시옷을 쓰는 남한은 ‘나룻배’라고 쓰지만,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북한은 ‘나루배’로 표기한다.

- 03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에는 ①, ④처럼 다듬은 말과 ③, ⑤처럼 사회주의 이념이나 제도를 반영하여 만든 말이 있다. ②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의 예이다.
- 04 너구리는 몸이 아프다는 꿈의 말을 믿고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왕밤알’ 자루까지 모두 꿈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 05 남한의 표준어에서는 다음 법칙에 따라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06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므로 ‘멧돼지’, ‘뿔마루’와 같이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메돼지’, ‘뿔마루’로 표기한다.
- 07 북한에서는 ‘두개의’와 같이 의존 명사를 붙여 쓰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두 개’의와 같이 띄어서 쓴다.
- 08 문맥상 훌륭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②의 뜻이 적절하다.
- 09 ㉠에서 ‘궁전’은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공간을 의미한다.
- 10 ‘동위(同位)’란 같은 위치란 뜻이다.
- 11 문맥상 ‘사귀다’는 ‘만나다, 교차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 12 용어의 표기가 다르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 통합하는 등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3 북한에서 ‘-질’은 직업 명사 뒤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접미사이다. 그래서 승희는 스스로없이 ‘선생질’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 14 정윤이가 이해하지 못한 ‘스크랩북’은 외래어이다.
- 15 이 대화는 남북한 대화 방식, 즉 언어문화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말 **톡톡**

본문 106쪽

- 드레스를 입고 육교를 건너던 지호가 돌풍에 놀라 넘어졌다.

- ‘나리옷’은 드레스, ‘구름다리’는 육교, ‘갑작바람’은 돌풍에 해당하는 말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108~109쪽

- 01 ③ 02 ② 03 유형 ①: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유형 ②: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 유형 ③: 북한에서 분단 이후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 04 ② 05 ④ 06 (1) 퇴마루에 (2) 겨울량식에 (3) 두개의/있는것이 07 ① 08 그뿐하게 (그뿐하다) 09 ③

- 01 이 글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관한 설명문으로 (가)에서는 남북한의 맞춤법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02 ㉠와 ㉡는 (라), ㉢는 (가), ㉣는 (다), ㉤는 (나)의 예이다.
- 03 이 글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맞춤법과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04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잡아 ‘있는것’과 같이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 05 (다), (라) 모두 분단 이후 북한의 어휘를 설명하고 있다.
- 06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다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존 명사는 붙여서 쓴다.
- 07 ㉠, ㉡는 어휘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하고, ㉢, ㉣는 맞춤법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 08 ‘그뿐하다’는 ‘빠짐없이 충분히 다 갖추어 놓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 09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남북의 언어와 규정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있다.

01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 '나룻배'가 아닌 '나루배'로 표기한다. 또한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이옹'이 아닌 '리옹'으로 표기한다. 의존 명사를 붙여서 쓰기에 '건널 것이다'가 아닌 '건널것이다'로 표기한다. 02 ㉠: 방언,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인정한 것은 남북한의 어휘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북한의 방언이 문화어에 포함되면서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 03 ㉡: 아, 정말 공부하기가 힘드네./공부하기 힘들다. ㉢: 진수는 요즘 보기에 딱하다. 04 ㉣은 '같은 목적으로 조직되는 작은 집단이나 조직. 소수의 인원이 모여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하는 모임.'을 뜻하고 ㉤은 '만나다. 교차하다. 서로 엇갈리어 지나가다.'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어휘를 연구하여 이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05 경수는 '카페, 골키퍼' 등 남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외래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쓴 것과도 관련지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어휘 사용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맞춤법의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각 1점	6점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	각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문화어에 북한의 방언이 포함되었음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4점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원인 중 하나임을 언급한 경우	2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 ㉡의 의미를 적절하게 쓴 경우	각 1점	2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과 ㉡의 의미를 적절하게 쓴 경우	각 1점	4점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05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경수가 외래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힌 경우	2점	4점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과 관련지어 원인을 적절하게 밝힌 경우	2점	

더 읽어 보기 - 섬세한 느낌을 담은 말

갈래	설명문
제재	의성어, 의태어
주제	의성어와 의태어로 살펴본 한국어의 특성
특징	① 의성어·의태어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함. ②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함.

더 읽어 보기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⑤

- 01 '다의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뜻하고, '개념어'는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 02 음성 모음은 양성 모음에 비해 어둡고, 무겁고, 탁하고, 큰 느낌을 준다.
- 03 ③은 모음 교체를 통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비해, 나머지는 자음 교체를 통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 04 ①, ③은 의성어와 그 의성어를 바탕으로 만든 단어의 예이며, ④는 모음 교체를 통한 어감 차이, ⑤는 자음 교체를 통한 어감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 05 ①, ②, ③, ⑤는 동물이나 곤충의 울음소리, 즉 의성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④는 '가늘게 비가 오는 모양', 즉 의태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 06 '반짝세일'은 의태어 '반짝'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그리고 '반짝-번쩍'은 모음, '반짝-뻥뻥'은 자음 교체를 통해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01 ③ 02 ④ 03 (1) ㄱ, ㄴ, ㄷ (2) ㄱ, ㄴ, ㄷ 04 ① 05
 ④ 06 ④ 07 ③ 08 책 09 ② 10 ③ 11 ④ 12 양
 식, 풋말, 앉았을 거야 13 ③ 14 ② 15 '궁전'은 북한에서 '여
 러 가지 수단과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큰 공간'의 의미로 쓰인
 다. 남한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어휘 유형에 속한다. 16 ②

- 01 '불 : 풀'은 'ㅂ'과 'ㅍ'의 소리 차이 때문에 그 뜻이 달라진다. 'ㅂ'과 'ㅍ'과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 02 찰리는 파찰음 가운데 거센소리인 'ㄷ'과 된소리 'ㅈ'을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어 가운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03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고, 이중 모음은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이다.
- 04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 ① 'ㅏ'는 저모음, 'ㅣ'는 고모음이다. ② 'ㅜ, ㅣ'는 모두 고모음이다. ③ 'ㅜ, ㅡ'는 모두 고모음이다. ④ 'ㅑ, ㅓ'는 모두 저모음이다. ⑤ 'ㅓ, ㅗ'는 모두 중모음이다.
- 05 '밤'은 하나의 음절이며 세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었다. 'ㅏ'는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고, 'ㅂ'과 'ㅁ'은 모두 입술소리이다. 'ㅁ'을 [ㅁ:]으로 길게 발음하면 '밤나무의 열매'란 의미이고, 짧게 발음할 때는 '밤[夜]'이라는 뜻이다.
- 06 <보기>는 모두 자음으로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ㄴ, ㅁ, ㅇ'은 비음이고, 'ㄱ, ㅌ'은 파열음, 'ㄷ'은 파찰음, 'ㅈ'은 마찰음이다. 또한 'ㄱ'은 예사소리, 'ㅌ, ㅍ'은 된소리, 'ㄷ'은 거센소리이다. 그리고 'ㅁ'은 입술소리, 'ㄴ, ㅌ, ㅍ'은 잇몸소리, 'ㄷ'은 센입천장소리, 'ㄱ,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07 ① 'ㅂ, ㅁ'은 입술소리이다. ② 'ㅓ, ㅞ'은 잇몸소리이다. ③ 'ㄷ'은 센입천장소리,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다. ④ 'ㄱ,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⑤ 'ㅌ, ㅍ'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08 파찰음이면서 거센소리인 것은 'ㄷ'이고, 전설 모음인면서 저모음이고 평순 모음인 것은 'ㅑ'이다. 그리고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파열음이고 예사소리인 것은 'ㄱ'이다. 이를 조합하면 '책'이다.
- 09 남북한의 맞춤법은 분단 이후 교류 없이 수정하면서 서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 10 남한은 사이시옷을 쓰기 때문에 '아랫방'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남한은 의존 명사를 띄어 쓰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넓게 잡아 의존 명사도 붙여서 쓴다. '드레스'와 '나리옷'은 맞춤법 차이가 아니라 어휘 차이 의 예이다.
- 11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나무잎'이라고 쓰는 남한과 달리 '나무잎'으로 표기한다.
-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두음 법칙, 사이시옷,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와 관련이 있다.
- 13 '견인차'는 한자어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순우리말 '끌차'로 다듬었다.
- 14 '세포'는 이념과 제도의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
- 15 '궁전'은 남한에서는 '임금이 거처하는 집'으로 주로 쓰이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양 수단들과 체육·문화 시설을 갖추고 정치 문화 교양 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로 쓰인다.
- 16 북한의 '문지기'는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경우에 해당한다.

4. 관점과 해석

(1)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가 잇힐 권리 법제화, 시급해

갈래	주장하는 글
제재	잇힐 권리의 법제화
주제	잇힐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특징	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남. ②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잇힐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19~120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② 05 바람직하다고 보며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화제에 찬성하며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01 ‘잇힐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한 제목을 통해 글쓴이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긍정적인 관점임을 알 수 있다.
- 02 ‘잇힐 권리’는 타인에게 인터넷상에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03 현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려면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잇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지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사실이 증명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04 결론 부분은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 05 글쓴이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 잇힐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갈래	주장하는 글
제재	잇힐 권리의 법제화
주제	잇힐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징	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남. ②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들어 잇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21~122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잇힐 권리의 법제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01 글쓴이는 잇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조적’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뜻한다.
- 02 ㉠은 잇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보여 주는 해외 사례로,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잇힐 권리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 03 (나)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려는 정치 후보자의 예를 들어 잇힐 권리의 법제화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04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와 같이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독자가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 05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합의와 통념에 따라 잇힐 권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을 뿐 기업들이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06 글쓴이는 잇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본문 123~125쪽

- 01 ㉔ 02 주장: ㉔, 근거: ㉔, ㉕, ㉖ 03 ㉔: 긍정적, ㉕: 부정적
04 ㉔ 05 ㉔ 06 ㉔

- 01 **가**와 **나**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라는 공통의 화제에 대하여 각각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02 잊힐 권리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에 관한 근거를 들고 있다.
- 03 **가**는 잊힐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나**는 법제화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 04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같은 문장을 통해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어야 함을 설득하는 광고임을 알 수 있다.
- 05 이 광고문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제목으로 제시하고 과거를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들의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 06 동일한 화제를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쓴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사고의 폭을 넓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우리말 톡톡

본문 125쪽

- ㉔: 훼손 ㉕: 게시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이라는 뜻의 단어는 ‘훼손’이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물건.’이라는 뜻의 단어는 ‘게시’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127~128쪽

- 01 ㉕ 02 ㉕ 03 ㉔ 04 잊힐 권리의 법제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 05 ㉔ 06 ㉕ 07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 정보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 01 (가)~(나)와 (다)~(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룬 논설문으로,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주장하는 글이다.
- 02 (가)~(나)에서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관련 사업자의 의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 03 (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이다. ㉔, ㉕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때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㉖, ㉗은 잊힐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 04 (다)에서는 정치 후보자의 정보 삭제 사례를 들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05 (가)~(다)는 주장하는 글, (라)는 광고문으로 모두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 06 (가)~(다)는 화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글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입장의 글을 참고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 07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에 관하여 (나)에서는 인터넷 공간에 노출된 개인 정보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01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두 글의 관점을 비교하며 읽으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다. 등 02 <보기>는 잇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잇힐 권리 법제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나)의 근거로 적절하다. 03 ‘잇힐 권리’와 관련한 그림을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호소하는 듯한 문구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글자에 색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와 (나)의 화제를 적절히 쓴 경우	2점	4점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었을 때의 효과를 적절히 쓴 경우	2점	
‘관점’과 관련하여 쓰지 않은 경우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가 어떤 글의 근거로 적절한지 바르게 쓴 경우	2점	4점
<보기>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여 쓴 경우	2점	
형식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다)의 형식적 특성을 바르게 쓴 경우	2점	4점
그 효과를 적절히 쓴 경우	2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2) 소망과 믿음의 노래

갈래	비평문
제재	이육사의 시 <청포도>
주제	시 <청포도>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이다.
특징	① 이육사의 삶과 관련지어 시 <청포도>를 해석함. ② 시 <청포도>를 시상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해석함.



본문 확인 문제

01 ② 02 푸른색(청색), 흰색(하얀색) 03 ③ 04 ④ 05 ②
06 ⑤ 07 ③ 08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꿈은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 01 화자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다.
- 02 이 시는 ‘청포도’ 등에 나타난 푸른색과 ‘흰 돛단배’ 등에 나타난 흰색의 색채 대비로 화자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 03 이 글은 이육사의 삶과 관련지어 시 <청포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 04 이육사 시인이 받았던 선비 교육은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일제와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 05 글쓴이는 ‘청포도’를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열린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다.
- 06 ‘은쟁반’과 ‘모시 수건’은 귀한 손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자세를 의미한다. 손님에게 친숙한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7 ‘손님’이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는 해석을 통해 이 시의 주제가 조국 광복에의 염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8 시 <청포도>는 이육사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그 투쟁의 삶이 맺은 결실임을 언급하고 있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134~137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시인의 삶/독립운동가
 였던 시인의 삶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노력 등

- 01 화자의 고장은 칠월이 되면 청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는
 곳으로 풍요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 02 시 <청포도>의 화자인 ‘나’는 ‘손님’을 맞아 누리게 될
 기쁨을 상상하며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
 고 있다. 고장의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으
 나 고장의 자연과 인심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이 글에는 시 <청포도>를 소개하고 이육사의 삶을 근거
 로 하여 시상의 흐름에 따라 시를 해석, 평가하고 있다.
- 04 글쓴이는 ‘손님’을 해방된 조국으로 해석하고 있다.
- 05 희수는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바
 탕으로 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다.
- 06 재우는 독립투사였던 시인의 삶을 근거로 하여 ‘손님’을
 독립운동을 함께 할 애국지사라고 해석하고 있다.
- 07 민지는 시 자체에 드러난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시 <청
 포도>를 그리움에 관한 시로 해석하고 있다.
- 08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근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작가의 생각이나 입장이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 09 여러 사람의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하면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도 세울 수 있다.
- 10 화자는 숲과 마을에 도달하기 위해 날마다 걷는 길을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1 ‘숲’과 ‘마을’이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면 ‘길’은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 토크

본문 137쪽

- ②

- <보기>의 ‘익다’는 ‘고기나 채소 등이 열을 받아 맛이나
 성질이 달라지다.’라는 뜻이다. ① ‘자주 경험하여 조금
 도 서투르지 않다.’, ③ ‘불이나 별을 오래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서 살갓이 빨갱게 되다.’, ④ ‘열매나 씨가 여물
 다.’, ⑤ ‘사물이나 시기 따위가 충분히 마련되거나 알맞
 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139~140쪽

01 ⑤ 02 ③ 03 나라를 찾고자 일제에 맞서 싸우는 길을 가
 게 되었다./선비 교육으로 형성된 선비 정신에 따라 독립투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04 ① 05 ④ 06 ② 07 ②

- 01 (가)의 화자는 ‘익어 가는’ 청포도에 담긴 희망을 노래
 하고 청포를 입은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
 으로 정성을 다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 02 ㉠은 시인의 삶을 근거로 하여 시를 해석한 것이다. 소
 진이 역시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
- 03 이육사가 받은 선비 교육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독립투사의 길
 을 가게 되었다.
- 04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있는 ‘전설’과 같은 존재는 ‘청포
 도’로, 이를 해석하고 있는 문단은 (가)이다.
- 05 5연에서는 ‘손님’을 맞아 앞으로의 희망과 기쁨의 말을
 나누는 즐거운 잔치를 상상하고 있다.
- 06 같은 작품도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독자가 가진 지식
 이나 경험, 가치관, 관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07 (마)에서 글쓴이는 이육사 시인이 살아온 독립을 위한
 투쟁의 삶이 <청포도>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함으로써
 시인의 삶이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드러
 내고 있다.

01 ㉔: 시인의 삶, ㉕: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 02 ‘청포도’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청포도는 마을의 역사와 삶, 꿈을 품은 ‘전설’이 열린 것이고, 알맹이 하나하나에 희망을 상징하는 ‘먼 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기 때문이다. 03 ㉖ ‘지난 일’은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했던 일을 의미하고, ㉗ ‘앞날’은 해방된 조국에 찾아올 풍요롭고 평화로운 날을 의미한다. 04 화자는 6연에서 귀한 물건인 ‘은쟁반’과 깨끗한 ‘모시 수건’을 준비하여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쓰기가 시인의 삶을 근거로 하여 시를 해석하였음을 쓴 경우	2점	4점
이 글에 나타난 <청포도>의 주제를 쓴 경우	2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㉘이 무엇인지 밝힌 경우	1점	5점
근거를 두 가지 쓴 경우	각 2점	
형식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㉙과 ㉚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하게 쓴 경우	각 2점	4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관점을 유지하여 <보기>를 적절히 해석한 경우	2점	4점
‘은쟁반’과 ‘모시 수건’의 의미를 포함하여 쓴 경우	2점	

더 읽어 보기

가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빛 공해가 심각하다

갈래	기사문
제재	빛 공해
주제	빛 공해는 수면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특징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② 빛 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를 사람, 식물, 동물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시골 쥐와 도시 쥐-빛 공해

갈래	동화
제재	빛 공해
주제	빛 공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도시 쥐가 시골 쥐의 도움으로 잠을 편안히 이루게 되었다.
특징	① 이솝 우화 <시골 쥐와 도시 쥐>를 재구성한 패러디 동화임. ②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전개함.

01 ㉓ 02 ㉑ 03 ㉒ 04 ㉓ 05 ㉔ 06 ㉕ 07 ㉖ 08 ㉗ 09 ㉘

- 01 글쓴이는 빛 공해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2 ㉙은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빛 공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03 빛 공해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치료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
- 04 가에서는 빛 공해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적절히 빛을 비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 05 가는 기사문으로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는 기존의 우화를 재구성하여 빛 공해의 문제를 다룬 동화로,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06 숲속 마을의 회색 쥐는 화려한 도시에 가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고 점차 도시 쥐가 되었다.
- 07 도시 쥐가 지치기 시작한 이유는 빛 공해로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다.
- 08 도시 쥐를 찾아온 시골 쥐는 밝은 불빛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도시 쥐를 위해 굴속을 어렵게 만들어 주었다.
- 09 빛 공해 때문에 고통받던 도시 쥐는 시골 쥐가 빛을 가려 주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 05 '내가 바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를 차려 놓고 풍성한 식탁에서 손님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벌일 것임을 상상하는 것에서, '손님'의 등장은 화자인 '나'에게 즐겁고 기쁜 일임을 알 수 있다.
- 06 문학 작품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작품을 창작한 작가, 작품 자체의 정보 등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 07 ㉠은 지친 몸으로 오는 손님이 힘들었던 지난 일을 풀어내고 청포도를 먹으며 희망적인 앞날을 그리는 즐거운 잔치를 말한다.
- 08 숲과 마을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09 (가), (나)를 통해 '빛 공해'가 도시의 과도한 인공조명들로 인해 사람과 동물, 식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10 (나)에는 동물이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겪는 일을 통해 빛 공해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11 (나)는 동화이므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완성 문제

본문 145~147쪽

01 ㉢ 02 ㉠ 03 <보기>는 잇힐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잇힐 권리를 법으로 정할 경우 법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다)의 내용과 연관된다. 04 ㉢ 05 ㉡ 06 <보기>는 시인 이육사의 삶을 근거로 하여 '손님'의 의미를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로 해석한 반면 (나)에서는 '손님'을 해방된 조국으로 해석하였다. 07 ㉤ 08 ㉡ 09 인공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과도한 빛이 사람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도시에서 조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상태를 말한다. 10 ㉢ 11 ㉤

- 01 (가), (다)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나), (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2 (가)에서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법한 문제를 예로 들어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3 <보기>는 같은 정보를 두고 공적 정보로 볼 것인지, 사적 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04 (라)는 잇힐 권리의 필요성을 담은 광고문으로, 짧은 문구와 그림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5. 주장과 토론

(1) 주장하는 글 쓰기

•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갈래	주장하는 글
제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주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특징	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함. ② 설문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51~152쪽

01 ⑤ 02 ② 03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짐. 04 ③
05 ② 06 ⑤

- 01 주장하는 글은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02 ‘서론’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다양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03 글쓴이는 신조어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 때문에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04 (다)에서 글쓴이는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 05 (라)에서는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국어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06 (마)는 글의 ‘결론’ 부분으로 앞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에는 전망이 나타나지 않는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153~156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해야 한다. 06 ④ 07 ⑤ 08 ③

- 01 이 글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여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02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하나의 주장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03 주장하는 글에 쓸 자료를 마련할 때에는 되도록 최신의 자료를 참고하여야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아진다.
- 04 ④의 집비둘기와 멧비둘기에 관한 내용은 주장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 05 <보기>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06 글의 목적, 주제, 독자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개요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 07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주장도 언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8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활용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말 톡톡

본문 156쪽

- ②
- 순서대로 ‘미완성, 비대칭, 미성년자, 무분별한, 비현실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158~159쪽

01 ⑥ 02 (가) 문단, 글에서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03 ① 04 ④ 05 ③ 06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를 어른 세대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에 대한 어른 세대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07 ② 08 집비둘기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

- 01 (다)에서 모든 청소년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조어 사용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02 (가)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예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03 (나)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 때문에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뒷받침함으로써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04 <보기>는 신조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라)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마지막'이라는 표현과 (라)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의 내용은 (라)의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05 (가)에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 (다), (라)에서는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06 (나)에서 인용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부모 세대조차 절반에 못 미치는 수만이 신조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
- 07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조어에 대한 세대별 인지도 차이를 보여 주어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세대별 신조어를 비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8 <보기>에서는 집비둘기의 부정적인 면과 개체 수를 줄이려는 외국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160쪽

01 주장: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근거 ①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②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02 휴대 전화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설문 조사 결과로 제시하면 근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3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된다는 내용을 전문가인 국어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4 (마)는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글의 주장을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6점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찾아 쓴 경우	각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에서 근거를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3점	5점
그 효과가 무엇인지 쓴 경우	2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라)에 제시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힌 경우	2점	4점
근거가 믿을 만한지 적절하게 판단한 경우	2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마)의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쓴 경우	2점	4점
(마)의 구성 단계와 역할을 바르게 쓴 경우	2점	

(2) 토론하기

•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한가

갈래	토론문
논제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
특징	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문제를 다룸. ② '입론-반론-반박-최종 변론'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함. ③ 토론자들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는 과정이 잘 드러남.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62~168쪽

01 ④ 02 입론-반론-반박-최종 변론 03 ④ 04 ⑤
05 ③ 06 (멸종 위기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 07 ④ 08 ② 09 ③ 10 ③ 11 종 보전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원들의 사례/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물원들의 사례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 운영 방식 ㉡: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꼭) 필요하다. 17 (토론에 대한) 배심원 판정/배심원 평가 18 ③

- 01 이 토론은 동물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관한 찬반 토론으로 배심원은 판정자의 역할, 사회자는 진행의 역할을 한다.
- 02 사회자는 양측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절차, 토론 규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 03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 전반을 진행하는 역할을 할 뿐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 04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을 뿐 동물원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 05 반대 측은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을 가두어 놓은 곳이고, 동물원의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06 반대 측은 동물원에는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도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07 반대 측은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동물원에서 관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야생에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08 찬성 측에서는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지어진 곳은 맞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09 찬성 측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예를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 10 반론에 대한 답변이나 질문을 하는 단계는 반론의 다음 단계인 '반박'에 해당한다.
- 11 찬성 측에서는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원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12 설문 내용 중 동물원 방문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은 방문객도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생물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설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 13 반대 측은 작은 동물원의 경우 동물권 보호를 위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므로 동물권 보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 14 최종 변론은 반론과 반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계이다.
- 15 찬성 측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고, 반대 측에서도 과거에 비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16 찬성 측은 동물원의 동물 보호 문제는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동물원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장소임을 언급하며 동물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17 최종 변론 후에는 배심원들이 토론 평가표를 작성하여 판정을 내린다.
- 18 토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명하고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 주장과 근거의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는지는 기준과 거리가 멀다.

● 학습 활동 확인 문제 ●

본문 169~174쪽

01 ③ 02 동물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 동물원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설문 조사 결과 동물원 방문객의 약 63퍼센트가 동물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를 뒷받침한다. 03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지 않다. 04 ① 05 ⑤ 06 동물 보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07 ④ 08 ① 09 ⑤ 10 ㉠-㉡-㉢-㉣ 11 ③ 12 ⑤ 13 ②

- 01 ②는 반대 측 근거, ④는 반대 측의 반론, ⑤는 찬성 측의 반론이다.
- 02 반대 측은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찬성 측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03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므로 반대 측의 최종 변론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사촌 언니의 사례는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 관련성은 있으나 객관성이 떨어진다.
- 05 ㉠은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 06 채이는 조사 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 07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분석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 08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의 주장을 논제로 삼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토의이다.
- 09 토론에서 상대측의 주장은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므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도 예상해 보아야 한다.
- 10 토론은 '입론-반론-반박-최종 변론'의 절차로 진행된다. ㉠은 입론, ㉡은 반박, ㉢은 반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 11 ③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12 제시된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가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길러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토론 결과를 평가할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말 톡톡

본문 174쪽

- ㉠: 논제 ㉡: 근거 ㉢: 반론
- 설득적 말하기인 토론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진행된다.

소단원 종합 문제

본문 176~177쪽

01 ④ 02 ③ 03 ③ 04 동물원에서 직접 동물을 보면서 동물이 사는 환경과 행동을 알 수 있고, 지구에 다양한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05 ⑤ 06 동물원에는 멸종 위기 동물만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도 많이 있다. 07 ② 08 ④

- 01 (가)~(다)는 토론이다. ①, ③은 면담, ②, ⑤는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 02 (가)에서는 논제 설정의 배경과 '입론, 반론, 반박, 최종 변론'의 진행 순서, 토론 참여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 (다)를 통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배심원의 판정은 최종 변론이 끝난 후 진행된다.
- 03 동물원에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도 많다는 것은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 04 (나)에서는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며 그 근거로 동물원에서 동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점과 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05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료하고 분명한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
- 06 (가)에서 반대 측은 동물원에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도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 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07 (다)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한 여러 노력의 예를 들어 반대 측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⑤는 (다)의 내용 흐름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 08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소단원 서술형 문제

본문 178쪽

01 반대 측은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찬성 측은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토론의 논제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이다. 이처럼 토론의 논제는 찬성과 반대로 명백하게 나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02 (마)에서 반대 측은 여러 동물원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가 일부 큰 규모의 동물원에만 해당한다는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마)의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03 상대측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측 토론자의 발언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상대측 토론자를 존중하지 않았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다)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이 토론의 논제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4점
토론의 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 한 가지를 쓴 경우	2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마)의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평가한 경우	1점	4점
그 이유를 적절히 밝힌 경우	3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의 잘못된 점을 토론의 규칙과 관련지어 두 가지 쓴 경우	각 2점	4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더 읽어 보기 - 다리를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갈래	토론문
논제	다리 금지령을 먼저 내려야 한다.
특징	① 임금과 신하들의 대화로 구성됨. ② 다리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먼저인지, 다리를 대신할 물건을 정하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신하들의 대립된 의견이 나타남. ③ 다리의 폐단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예가 제시됨.

더 읽어 보기

본문 179~180쪽

01 ⑤ 02 ③ 03 ⑤ 04 ㉠ 의견/생각 ㉡ 의견이 하나 될 가망/의견이 일치할 가능성 05 ③

- 01 김치인은 다리를 대신할 물건을 정한 후 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02 신하들은 다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리를 금지할 시점에 관한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03 가난한 백성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다리는 고가품이었다.
- 04 체제공은 당장 다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05 이재간은 다리를 금지하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리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것과 다리 금지가 선왕의 뜻을 잇는 일임을 근거로 삼고 있다.

대단원 완성 문제

본문 181~183쪽

01 ① 02 ㉠-㉡-㉢ 03 ③ 04 ④ 05 ② 06 ⑤ 07 ⑤
 08 ⑤ 09 ③ 10 주장: 학교 내에서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근거: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 등

01 이 글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담은 글로 신조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어휘력과 사고력 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02 ㉠은 청소년들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은 이 글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03 집비둘기의 외양이 혐오감을 주므로 격리 사육해야 한다는 것은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04 (나), (다), (라)는 찬성 측의 입장으로 동물원에서 동물권 보호와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물원을 방문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가)와 (마)는 반대 측 입장으로,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동물들에게 인위적인 환경만을 제공할 뿐임을 근거로 들고 있다.

05 <보기>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06 ①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동물원에서 동물권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 예를 제시함으로써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상대측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07 (가), (나)는 주장하는 글, (다)~(마)는 토론문으로 모두 '설득'을 목적으로 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명료하게 주장을 표현하고 있다. 비유나 풍자 등은 활용하지 않았다.

08 (마)는 토론의 최종 변론으로 토론의 과정에서 제시한 근거를 종합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09 (다)에서 사회자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과 동물 학대의 실상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10 무인 방법 카메라 확대 설치로 인한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을 근거로 들어 반대 측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학과 소통

본문 4~5쪽

- 01 ① 02 ③ 03 ⑤ 04 (1)㉠ (2)㉡ (3)㉢ 05 ⑤ 06 ①
07 ② 08 ⑤ 09 포획 → 포착 10 (1) 자연 (2) 서슴치

- 01 '자락'은 '논밭이나 산 따위의 아래쪽의 넓은 부분.'이다. '직성'은 '타고난 성질이나 성미.'이다.
- 02 '심혈'은 '마음과 힘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심혈을 기울이다.', '심혈을 쏟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①, ②, ④, ⑤에는 문맥상 '심장'이 들어갈 수 있다.
- 03 '불티나다'는 '물건이 내놓기가 무섭게 금방 팔리거나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 04 (1) '행상'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2) '흡사'는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한 모양.'이다. (3) '산지'는 '생산되어 나오는 곳.'이다.
- 05 '구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이라는 뜻이다.
- 06 밑줄 친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악의'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마음.'이라는 뜻이다.
- 07 '소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① '작심하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다.', ③ '고전'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몹시 힘들고 어렵게 싸움. 또는 그 싸움.', ④ '신뢰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 ⑤ '정도' '올바른 길. 또는 정당한 도리.'를 의미한다.
- 08 ⑤에서 '환락'은 '아주 즐거워함. 또는 아주 즐거운 것.'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 09 '포획'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의 의미이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이라는 뜻의 단어인 '포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0 '자연'은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서슴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라는 의미이다.

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본문 8~9쪽

- 01 ⑤ 02 ④ 03 ② 04 (1)㉠ (2)㉡ (3)㉢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9 수거 → 수확 10 (1) 울창하다 (2) 일렁인다
(3) 조급하게 (4) 온전하게

- 01 '낭길'은 '낭떠러지를 끼고 난 길.'이다. '오솔길'은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이다.
- 02 '요긴하다'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이다.
- 오답 피하기**
① 대단하다, ② 건강하다, ③ 독특하다, ⑤ 우수하다
- 03 '절기'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뜻하고 ②에는 '시간'이 적절하다.
- 04 (1) '헛일'은 '보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이다. (2) '구들장'은 '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이다. (3) '임업'은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이다.
- 05 '가늠'은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사물을 어렵잡아 헤아림.'이라는 뜻이다.
- 06 밑줄 친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인위적'으로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 07 '찾아지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없어지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나타나지 않게 되다.'의 뜻이다. ② '마르다'는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③ '고려하다'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의미이다. ④ '번거롭다'는 '일의 갈피가 어수선하고 복잡한 데가 있다.'를 의미한다.
- 08 '민감하다'는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데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 09 '수거'는 '거두어 감.'이라는 뜻이다.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의 뜻을 가진 단어인 '수확'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0 '울창하다'는 '나무가 뺏뺏하게 우거지고 푸르다.', '일렁이다'는 '크고 긴 물건 따위가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다.', '조급하다'는 '늦거나 느긋하지 아니하고 매우 급하다.', '온전하다'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를 의미한다.

3. 소중한 우리말

본문 11쪽

01 ③ 02 ④ 03 ② 04 (1)㉠(2)㉡(3)㉢ 05 ⑤

- 01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이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02 **오답 피하기**
① 자음, ② 비음, ③ 파열음, ⑤ 유음
- 03 '동질성'은 '사람이나 사물의 바탕이 같은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 04 '맞춤법'은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이다. '동무'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다. '방언'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다.
- 05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라는 의미이다.

4. 관점과 해석

본문 14~15쪽

01 ① 02 ① 03 ⑤ 04 (1)㉠(2)㉡(3)㉢(4)㉣ 05 ④
06 (1) 쫓아 (2) 비평 07 ④ 08 ⑤ 09 조국, 투옥된, 해방

- 01 밑줄 친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통념'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 02 '정경'은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와 경치'라는 뜻이다.

오답 피하기

② 구경, ③ 존경, ④ 귀경, ⑤ 동경

- 03 '행적'은 '어떤 행위를 한 뒤에 남긴 표시나 흔적. 또는 평생 동안 한 일이나 업적.'을 의미한다.
- 04 (1) '신상'은 '한 사람의 몸.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 (2) '침해'는 '남의 땅이나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해를 끼침.' (3) '불가결'은 '없어서는 아니 됨.' (4) '법제화'는 '법률로 정하여 놓음.'의 의미이다.
- 05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는 '공인'이다.
- 06 '쫓다'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이라는 뜻이다.
- 07 '염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①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 ② '식견'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르는 말.' ③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씬.' ⑤ '주의'는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을 의미한다.
- 08 ① '전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② '모시'는 '풀에서 질긴 껍질을 벗겨 만든 실로 짠, 희고 얇은 여름 옷감.' ③ '주저리주저리'는 '너저분한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④ '시상'은 '시를 쓰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생각.'을 뜻한다.
- 09 '해방'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함.', '투옥되다'는 '감옥에 가두어지다.', '조국'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투쟁하다'는 '어떤 대상을 이기기 위해 싸우다.'의 의미이다.

5. 주장과 토론

본문 18~19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① 05 (1) 발생했다 (2) 인지도
06 ① 07 ② 08 ③ 09 무기력하게 → 원만하게

- 01 '구경거리'는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것.'이다. '발언'은 '말을 꺼내어 의견을 나타냄. 또는 그 말.'을 뜻

한다.

- 02 '논란'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벌이며 다툼.'이라는 뜻이다. ①은 '논의'가 적절하다.
- 03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 또는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③은 '자칭'이 적절하다.
- 04 '철거하다'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다.'의 의미이다.
- 05 '방생하다'는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다.', '인지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지역, 국가 등을 알아보는 정도.'
- 06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지다.'의 뜻인 '저하되다'가 적절하다.
- 07 ① '터전'은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③ '멸종'은 '생물의 한 종류가 없어짐.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림.' ④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⑤ '단순화'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의 뜻이다.
- 08 밑줄 친 단어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의 뜻으로 쓰였다.
- 09 '무기력하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운이나 힘이 없다.'는 뜻이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의 뜻을 가진 단어인 '월만하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 문학과 소통

(1) 꽃

5분 테스트

본문 21쪽

- 01 (1) 표현, 심미적 (2) 형상화 (3) 의도 (4) 소통 02 (1) 꽃 (2) 존재, 의미 (3) 본질 03 (1) × (2) ○ (3) × 04 (1) ㉠, ㉡ (2) ㉢, ㉣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22쪽

- 01 ① 02 이름 부르기 03 ② 04 ⑤ 05 ②

- 01 이 시의 화자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간절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02 이름 부르기를 통해 그 대상은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한다. 이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며,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 03 <보기>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길들임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존재,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04 <보기>의 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꽃'은 '흔들리는' 고난을 이겨 내고 '줄기를 곧게' 세우는 강인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 05 화자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달라고 한 것은 '나'의 존재의 본질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2)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5분 테스트

본문 24쪽

- 01 (1) 갈등 (2) 서술자 (3) 관찰 02 (1) × (2) × (3) ○ (4) ×
 03 이웃, 심미적 04 (1) ㉠, ㉡ (2) ㉢, ㉣ (3) ㉤, ㉥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25~26쪽

- 01 ㉤ 02 ㉢ 03 ㉤ 04 일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05 ㉡ 06 전화를 받을 때 느릿느릿한 말투로 “제가 긴데요.”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07 ㉢
 08 ㉡

- 01 이 글은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한 주변 이웃들에 대해 서술한 소설이다. 이웃들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으나 다른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02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의 공통점은 성실하고 끈질기다는 것이다.
- 03 성실한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의 맛은 환상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밥을 만드는 속도와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04 (다)에서 서술자는 빵떡모자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칭하며 예술가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없다고 하였다. 즉, ㉤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빵떡모자 아저씨가 자신의 일과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 높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5 이 글은 김대호 씨에 관한 이야기로, 뚜렷한 갈등이 없으며 서술자는 김대호 씨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06 (다)에서 김대호 씨가 그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제가 긴데요.”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아예 ‘긴데요’로 부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07 (라)에 따르면 김대호 씨는 이해를 잘하고 낙천적이어서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하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낸다.
- 08 ㉡는 김대호 씨이고, ㉣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가리킨다. 서술자는 여유 없고 바쁜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느릿한 김대호 씨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 읽어 보기 예상 문제

본문 27~28쪽

- 01 ㉡ 02 ㉡ 03 ㉣ 04 ㉤ 05 ㉤ 06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07 ㉠

- 01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 자신의 경험, 생각 등을 진솔하게 쓰는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 02 이 글은 어른이 된 ‘나’가 ‘아들’에게 어린 ‘나’의 일을 들려주고 있으며, (가)~(라)는 내부 이야기, (마)는 외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 03 이 글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생길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 주는 수필이다. 등교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어린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한층 성장하게 된다.
- 04 (가)에 나타난 갈등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나’와 ‘나’를 학교에 보내려는 ‘어머니’의 외적 갈등이다.
- 05 ‘작은 강’은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06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슬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 07 ㉡는 은유법이 사용된 것으로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이다.

01 ③ 02 ⑤ 03 '나'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나'에게 '그'가 의미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하나밖에 없는 존재 07 ③ 08 ③ 09 ⑤ 10 옆구리가 터진 김밥 11 ① 12 ① 13 ③ 14 바쁜 세상 속에서 김대호 씨와 같은 느끼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도 필요하다.

- 01 (다)에서는 '나'가 자신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 02 이 시에서는 '...고 싶다'와 같은 문장 형식을 반복하거나 '꽃', '...짓' 등의 시어를 반복하고 있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 03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나'에게 인식되지 않은 존재이고, 의미 없는 존재이다.
- 04 이 시에서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무엇' 역시 우리들 모두가 되고 싶은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한다.
- 05 '나'의 이름은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즉, '나'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06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보기>에서 서로를 길들이는 행위로 나타난다. 길들이는 행위,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서로에게 무의미했던 존재들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 07 이 소설은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08 (다)에서 '나'는 김밥 아줌마의 김밥도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보통의 김밥과는 다른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하였다.
- 09 (가)에서는 '나'에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밝히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

고 있다.

- 10 '작품'이란 김밥을 의미하고 '실패작'이란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로 인해 나온 김밥을 의미한다.
- 11 이 글에서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조각'이라고 한 것은 서술자인 '나'이다.
- 12 이 소설의 제목은 길모퉁이처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을 의미한다.
- 13 (가)~(나)에서 '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런 그의 노력과 자신감, 자부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를 풍자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14 (마)에서 김대호 씨처럼 느린 사람이 바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한 것에서 작가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 01 ㉠은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자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은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이와 의미가 비슷한 시어에는 '무엇', '하나의 눈짓'이 있다.
- 02 '길들인다'의 의미를 참고할 때 ㉢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는 '나'와 '나'의 소망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03 김대호 씨는 신체의 여러 부분이 길고, 성격은 느리지만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다. 김대호 씨에 대해 서술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김대호 씨와 같은 사람은 '느림'의 가치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 04 '빨리빨리 문화'는 빠른 속도만 재촉할 뿐 과정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해. 김대호 씨처럼 느리지만 진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일에 하자를 내는 법이 없고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거든. '빨리빨리' 행동하려고 일을 '대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의 의미를 제대로 서술한 경우	2점	5점
㉡과 같은 의미를 지닌 시어를 한 가지 이상 찾아 쓴 경우	2점	
문장의 내용과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경우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길들인다'의 의미와 ㉢의 의미를 연관 지어 쓴 경우	3점	4점
한 문장으로 쓴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김대호 씨의 특징을 신체적 특징과 성격적 특징으로 각각 나누어 쓴 경우	각 1점	5점
서술자의 평가를 밝히고 이에 공감하는지 근거를 들어 적절히 쓴 경우	3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다)의 서술자의 입장에서 '빨리빨리 문화'를 적절히 평가한 경우	3점	4점
구어체로 쓴 경우	1점	

소단원 **여사** 문제

본문 36~37쪽

01 ㉣ 02 ㉤ 03 ㉢ 04 ㉡ 05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이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이다. 06 ㉡

- 01 농사일에 있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은 시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 02 <보기>는 공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공장을 돌리는 시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업이 발달 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음을 언급한 (마) 뒤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03 ㉠, ㉡, ㉢,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했지만, ㉢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추측했다.
- 04 이 글은 과거의 농업 위주 사회와 현재의 공업 위주 사회의 모습 및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 05 <보기>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다룬 내용이다. (라)에 의하면 인간이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는 등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
- 06 <보기>에서는 앞에 나온 문장을 토대로 ㉠의 의미를 파악했는데, 이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1)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5분 테스트

본문 35쪽

01 (1) 배경지식 (2) 문제, 이해 02 (1) 인위적 (2) 절기 (3) 자연 환경 03 (1) ㉠, ㉢ (2) ㉡, ㉣ 04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함.

(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5분 테스트

본문 39쪽

01 ㉢-㉣-㉡-㉠-㉣ 02 주제, 독자, 소개 03 (1) ㉢ (2) ㉠ (3) ㉣ (4) ㉡ (5) ㉣ 04 (1) 질문 (2) 크기 (3) 사진 (4) 링크 (5) 단어, 비유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40~41쪽

01 ③ 02 ② 03 ③ 04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을 걷는 느낌을 바다 위를 걷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5 ④ 06 ④ 07 사진 자료를 추가한다./관련 웹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둔다.

- 01 (가)~(마)에는 글을 쓰는 각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며 글을 쓰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 02 <보기>는 (나)의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03 지우는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글을 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제와 벗어난 ③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04 (라)에서는 길을 걷는 느낌을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유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05 (라)에서 범바위는 바위산이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아서 또는 바람이 불 때 바위틈에서 범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 06 ㉠은 글의 끝부분으로,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 07 블로그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첨부하거나 관련 웹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둘 수 있다.

더 읽어 보기 **예상 문제**

본문 42~4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줄거리 및 중심 사건 등 글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책 읽기의 방법을 설명한 글로, 기존의 읽기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가)에서는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에서 전달

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이러한 읽기 방법과 거리가 멀다.

- 03 <보기>는 '왜 놀부는 흥부를 내쫓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놀부의 입장에서 대답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놀부가 자기 마음대로 억지만 부리는 욕심 많은 인물이라는 기존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04 (다)는 책 읽기의 셋째 단계로 앞서 정리한 답이 말이 되는지, 합리적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05 책을 읽을 때에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글의 줄거리와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대단원 **예상 문제**

본문 44~46쪽

01 ② 02 ④ 03 ㉠: 배경지식을 활용했다. ㉡: 뒤이은 문장(글에 나타난 정보)을 참고했다. 04 ④ 05 ② 06 4번 코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끌기 위해서이다. 07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글을 인상 깊게 마무리하였다. 08 ② 09 ④ 10 ④

- 01 (나)에서는 조선 시대에 이미 시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2 농업 위주의 생활을 한 우리 조상들은 절기에 따라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다. 시간을 중시한 것은 공업이 발전한 이후이다.
- 03 ㉠은 '동창(東窓)'이라는 한자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해 ㉡의 의미를 파악했으며, ㉢는 글에 나타난 정보인 뒤이은 문장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파악했다.
- 04 (가)는 '슬로길'의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 (나)는 청산도의 소개, (다)는 '슬로길'의 소개를 담고 있다.
- 05 ㉣은 '슬로길'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06 (라)는 4번 코스를 설명한 부분으로 제시된 사진 자료

를 통해 4번 코스에서 볼 수 있는 풍경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끌 수 있다.

- 07 (바)에서는 독자에게 청산도 여행을 권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08 (나)에서는 공업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공업 사회에서 농업을 중시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 09 <보기>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글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다른 독자라도 소통할 수 있으나 <보기>와는 거리가 멀다.
- 10 (라)는 글에 답을 내용을 생성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해결 과정, (마)는 개요를 작성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해결 과정이 제시 되어 있다.

대단원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문 47~48쪽

- 01 ㉠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여 계절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 일 년에 한 번 정도 과일을 수확하지만, ㉡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과일을 길러내어 계절에 상관없이 과일을 수확한다.
- 02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는 등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행동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어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무분별하게 자원을 확보하거나 밀림을 파괴하는 등 자연의 질서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북극곰과 같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 03 앞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짐작했어./'요'의 한자를 생각해 보았는데, '중요할 요(要)'인 것 같아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어. 등
- 04 글쓴이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추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 05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청산도 '슬로길'에서 삶의 여유를 찾자/느리게 걷는 그 길, 청산도 '슬로길' 등
- 06 글의 내용과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는 '청산도를'에서부터 문단을 구분한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사람들의 태도 변화 양상을 쓴 경우	2점	5점
<조건 1>에 맞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	2점	
<조건 2>에 맞게 쓴 경우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힌 경우	2점	5점
<조건 1>에 맞게 문제점을 포함해 쓴 경우	2점	
<조건 2>에 맞게 쓴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들어갈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3점
<조건 2>에 맞게 쓴 경우	1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쓴이가 <보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쓴 경우	2점	4점
<조건 1>에 맞게 <보기>의 글쓰기 단계를 제시한 경우	1점	
<조건 2>에 맞게 쓴 경우	1점	

05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쓴 경우	2점	3점
<조건>에 맞게 쓴 경우	1점	

06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조건 1>에 맞게 새로운 문단의 첫 어절을 포함하여 쓴 경우	2점	4점
<조건 2>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한 점을 밝힌 경우	2점	

3. 소중한 우리말

(1) 우리말의 음운 체계

5분 테스트

본문 50쪽

01 (1) ㅁ, ㅂ (2) 뜻, 작은 02 (1) 자음, 19 (2) 모음, 21 03 단 모음, 이중 모음 04 (1)-㉠-㉡ (2)-㉢-㉣ (3)-㉤-㉥ 05 (1) 위치, 입술,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2) 방법, 파열음, 유음, 파열음, 거센소리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51~52쪽

01 ㉢ 02 '㉠', '㉡', '㉢', '㉣',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ㅇ'은 여린입천장 소리, '㉠'은 잇몸소리, '㉡'은 입술소리, '㉢'은 센입천장소리, '㉣'은 목청소리이다. 이는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2 ㉢ 13 ㉣ 14 ㉣ 15 ㉢ 16 ㉡

- 01 음운은 표기의 단위가 아니라 소리의 단위이다. 그래서 음운을 분석할 때에는 쓰인 글자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대로 분석한다.
- 02 음운은 소리의 단위이므로 표기에 해당하는 '무릎'이 아니라 발음인 [무릅]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 03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모음'이다. '즐거운 아침'에서 모음은 'ㄴ, ㄷ, ㅌ, ㅍ, ㅌ' 5개가 사용되었다.
- 04 'ㅏ, ㅑ, ㅓ, ㅕ'는 단모음이고 'ㅗ, ㅛ, ㅜ'는 이중 모음이다.
- 05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하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 한다.
- 06 단모음을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분류한 것이다.

'ㅏ, ㅑ, ㅓ, ㅕ, ㅗ'는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쪽에 놓이는 전설 모음이고, 'ㅗ, ㅛ, ㅜ'는 뒤쪽에 놓이는 후설 모음이다.

- 07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음운은 단모음 가운데 중모음 이면서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인 음운이다. ② 전설 평순 고모음이다. ③ 후설 원순 고모음이다. ④ 전설 평순 저모음이다. ⑤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이다.
- 08 모음 'ㅑ'는 단모음으로, 전설 모음이고 평순 모음이며 중모음이다.
- 09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이다. 잇몸소리에는 'ㄴ, ㄷ, ㅌ, ㅍ, ㄹ, ㅅ, ㅆ'가 있다. 'ㄱ'은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 'ㅎ'은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 'ㅈ, ㅊ'은 혀 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이다.
- 10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파열음이고 된소리이다. ①은 입술소리, ②는 예사소리, ③은 파열음, ④는 거센소리, ⑤는 비음에 대한 설명이다.
- 12 'ㄱ'은 파열음이면서 예사소리, 'ㅌ'은 파열음이면서 된소리, 'ㅈ'은 파찰음이면서 된소리, 'ㅊ'은 파열음이면서 거센소리이다.
- 13 그릇의 일종인 '병'은 [병]과 같이 짧게 발음하고, 질병이란 의미의 '병'은 [병:]으로 길게 발음한다.
- 14 '잘라서', '뒹뒹'을 [잘라서], [따끄면]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 15 ① [산팔짝]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는 'ㅍ', 'ㅈ' 두 개다. ② 원순 모음 'ㅇ'와 평순 모음 'ㅏ'가 발음된다. ③ 비음 'ㄴ'과 유음 'ㄹ'이 있다. ④ 거센소리는 없다. ⑤ 자음 'ㅅ, ㄴ, ㅍ, ㄹ, ㅈ, ㅊ, 모음 'ㅏ, ㅓ'로 구성되었다.
- 16 찰리는 '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ㅈ'로 '차'로 잘못 발음하였다. 외국어 가운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여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 세 소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통일 시대의 우리말

5분 테스트

본문 54쪽

- 01 한글 맞춤법 통일안 02 (1) 나루배 (2) 리용 (3) 건널것이다
 03 (1) 사이시옷 (2) 두음 법칙 (3) 단어 단위 04 (1) ㉠ (2) ㉡
 (3) ㉢ (4) ㉣ 05 교류, 관심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55~56쪽

- 01 ㉣ 02 ㉢ 03 (1) 메돼지, 표말, 퇴마루 (2) 북한에서는 사이
 시옷을 쓰지 않는다. 04 ㉡ 05 ㉠ 06 ㉣ 07 (다) 08 ㉠

- 01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북한의 맞춤법이 남한과 다른 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02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므로 ‘이용, 양심’으로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리용, 량심’과 같이 표기한다. 한편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04 남한에서는 ‘놓은 게’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05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1966년에 평양말을 표준어로 한 문화어를 제정하였다.
 06 ‘밥공장’은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로 만든 말이다.
 07 ‘동무’는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의 예이므로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된 어휘를 설명한 (다)의 예로 추가하기에 적절하다.
 08 ‘나리옷’은 남한의 ‘드레스’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더 읽어 보기 예상 문제

본문 57~58쪽

- 01 ㉤ 02 ㉤ 03 ㉡ 04 ㉡: 양성 모음 ㉢: 음성 모음 05 ㉡
 06 한국어에는 의성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단어가 많다./한국어의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 가운데에는 특히 울음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에서 온 말이 많다. 07 ㉡: 쭈근쭈근 ㉢: 소곤소곤

- 01 ㉡은 가늘게 비가 오는 모양을 흉내 낸 ‘보슬보슬’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말이라고 하였으므로 ‘보슬비’가 들어가야 한다. ‘장대비’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짹짹 내리는 비’를 뜻한다.
 02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반짝’과 같은 단순형이 ‘반짝반짝’과 같은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03 ㉠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교체를 통한 어감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며, ㉢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교체를 통한 어감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04 ‘반짝반짝’, ‘풍당’이 주는 느낌이 양성 모음의 느낌이며, ‘번쩍번쩍’, ‘풍덩’이 주는 느낌이 음성 모음의 느낌이다.
 05 ‘꼬꼬’는 ‘암탉이 우는 소리’이고, ‘꼬꼬댁’은 ‘닭이 놀랐거나 알을 낳은 뒤에 우는 소리’로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해당 생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말이 생물의 이름이 된 사례들이다.
 07 자음을 교체하여 예사소리 ‘ㅅ’ 대신에 된소리 ‘ㅆ’를 쓰면 센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성 모음 ‘ㅜ’를 양성 모음 ‘ㅜ’로 교체하면 가볍고 작은 느낌을 줄 수 있다.

대단원 예상 문제

본문 59~61쪽

- 01 ㉠ 02 ‘살’과 ‘실’의 뜻을 구별해 주는 ‘ㅌ’와 ‘ㄷ’와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다. 03 ㉡
 04 ㉢ 05 ㉤ 06 단모음 ‘ㅛ’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반면, 이중 모음 ‘ㅛ’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한다. 07 ㉢ 08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원순 모음 ㉡와 그렇지 않은 평순 모음 ㉢로 나눈 것이다. 09 ㉡ 10 ㉢ 11 자음 ‘ㅈ’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낸다. 12 ㉤ 13 ㉣
 14 ㉣ 15 ㉢ 16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 17 ㉣ 18 ㉢ 19 ㉤

- 01 ① 자음 중 된소리를 나열한 것이므로 음운이다. ② 음절 단위로 나열한 것이다. ③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④ 어절 단위로 나열한 것이다. ⑤ 한 문장을 제시한 것이다.
- 02 ‘살’과 ‘실’은 가운데소리(중모음)가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이다. 즉, ‘ㅅ’와 ‘ㅈ’는 음운이다.
- 03 <보기>는 [발근세상]으로 발음되므로, <보기>에 쓰인 음운은 ‘ㅂ, ㅈ, ㄷ, ㄱ, ㄴ, ㄹ, ㅅ, ㅆ, ㅊ, ㅌ, ㅍ’으로 분석할 수 있다.
- 04 <보기>에는 파열음 ‘ㄱ’, 비음 ‘ㄴ’, 유음 ‘ㄹ’이 쓰였다.
- 05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쪽에 놓이는 모음은 전설 모음, 뒤쪽에 놓이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다. 전설 모음은 ‘ㅣ, ㅐ, ㅑ, ㅕ, ㅖ’이다.
- 06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 07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은 ‘ㅣ, ㅕ, ㅖ, ㅗ, ㅛ’, 중모음은 ‘ㅐ, ㅑ, ㅕ, ㅛ’, 저모음은 ‘ㅓ, ㅕ’이다.
- 08 ‘ㅗ, ㅛ, ㅕ, ㅛ’는 원순 모음이고, ‘ㅓ, ㅕ, ㅑ, ㅑ, ㅖ, ㅖ’는 평순 모음이다. 이는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09 파열음이면서 예사소리이고 입술소리인 것은 ‘ㅂ’이고, 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이고 평순 모음인 것은 ‘ㅐ’이다.
- 10 ‘ㅅ, ㅆ, ㄴ, ㄷ’은 잇몸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 11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의 그림은 파찰음을 소리 내는 방법과 관련된다.
- 12 ㉠에는 예사소리에 비해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가 쓰였고, ㉡에는 거칠고 거센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가 쓰였다.

- 13 각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발음된다. (1) [추운바메따뜨탄바:믈까머건따] (2) [말타면경마자피고십따는마:리인따] (3) [그병:을고칠쑤인는야기이병에드러인따]
- 14 북한에서 ‘손기척’은 ‘노크’를 다듬어 만든 말이다.
- 15 북한에서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었다.
- 16 <보기>는 ‘바쁘다’라는 어휘를 남북한이 서로 다른 뜻으로 쓰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나) 문단에 제시된 유형에 해당된다.
- 17 거래처 사람은 ㉠을 인사말로 사용했으나 은주는 ㉡을 직접적인 식사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여 오해가 생긴 상황이다. 거래처 사람은 인사말로 ㉠과 ㉡이 같이 말했으므로 은주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18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그꼴하다’는 ‘빠짐없이 충분히 다 갖추어 놓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 19 ㉠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논쟁’을 ‘론쟁’으로 표기한 예이다. 이러한 표기는 ‘조선말 규범집’에 따른 것이다. ㉡는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설명이다.

대단원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문 62~63쪽

- 01 ㉠은 전설 모음, ㉡은 후설 모음이다.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이고,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다. 전설 모음에는 ‘ㅣ, ㅐ, ㅑ, ㅕ, ㅖ’가 있고, 후설 모음에는 ‘ㅓ, ㅕ, ㅗ, ㅛ, ㅜ’가 있다.
- 02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국어에는 같은 모음이라 하더라도 ‘말[語]’은 길게, ‘말[馬]’은 짧게 발음하는 것과 같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도 음운으로 보는 것이다.
- 03 한국어에서는 ‘ㅈ, ㅉ, ㅊ’과 같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별개의 음운으로 본다. 하지만 외국어 가운데에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04 (1) [학교], [산골짜기] (2) ㉠ ㉡ ㉢ ㉣ ㉤ ㉥ ㉦ ㉧, ㉨ ㉩ ㉪ ㉫, ㉬ ㉭ ㉮

05 소진이가 ‘해’와 ‘개’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진이는 ‘개’를 [개:]로 발음해야 한다./소진이가 ‘개’를 [ㄱ]로 발음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개’는 ‘해’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덜 벌리고 혀를 높여 발음해야 한다.

06 남한은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 북한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서 ‘나루배’로 표기한다.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해 ‘이용’으로,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리용’으로 표기한다. 북한은 남한보다 붙여 쓰는 경우를 더 넓게 잡아 ‘건널것이다’와 같이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07 (1) 만나다/교차하다/서로 엇갈리어 지나가다 등
(2) 같은자리가, 《겨레말 큰사전》을 빨리 출판하여 남북한에서 널리 사용하게 한다./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어휘의 단일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은 전설 모음, ㉡은 후설 모음임을 밝힌 경우	각 1점	6점
‘입천장의 중간점’, ‘혀의 최고점(의 위치)’, ‘앞쪽’, ‘뒤쪽’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하여 분류 기준을 쓴 경우	2점	
㉠과 ㉡에 각각 해당하는 단모음을 모두 쓴 경우	각 1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음운의 정의와 관련지어 쓴 경우	2점	3점
소리의 길이가 음운의 역할을 하는 사례를 쓴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ㄷ, ㅌ, ㅌ’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에 해당함을 밝힌 경우	2점	5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에 대한 한국어 화자와 외국어 화자의 인식 차이를 적절히 쓴 경우	3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1) 두 단어의 발음을 바르게 쓴 경우	2점	4점
(2) 모음과 자음을 바르게 분류한 경우	2점	

05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해’와 ‘개’의 발음을 구별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경우	2점	4점
‘개’의 정확한 발음을 언급한 경우	2점	

06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사이시옷, 두음 법칙, 띄어쓰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각 1점	4점
차이점을 보여 주는 표기를 밝힌 경우	각 1점	

07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의 의미가 통하도록 적절히 쓴 경우	2점	5점
‘동위각(同位角)’에 해당하는 북한의 용어를 바르게 찾아 쓴 경우	1점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히 쓴 경우	2점	

4. 관점과 해석

(1)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5분 테스트 본문 65쪽

01 (1) 화제 (2) 태도 (3) 내용 02 (1) × (2) ○ (3) × (4) ○
03 (1) ㉠, ㉡, ㉢ (2) ㉣, ㉤, ㉥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66~67쪽

01 ㉣ 02 ㉤ 03 ㉣ 04 ㉠ 05 ㉤ 06 ㉣

- 01 이 글은 법제화를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긍정적인 관점이다.
- 02 우리나라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과 정보 통신망법이 있

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이 있을 경우 정보 삭제
를 요구할 수 있으나 증명의 문제가 있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 03 <보기>의 학생은 개인 정보 수집에는 동의했지만, 정
보의 사용 범위를 보장받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다)를 통해 이 글의 글쓴이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통
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보기>에서 A씨는 B씨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평가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
청한 (다)의 '정수'와 A씨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05 (다)에서 글쓴이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 불가결의 기본
권이며,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
해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06 글쓴이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을 언급하고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제목은 ④가 적절하다.

(2) 소망과 믿음의 노래

5분 테스트

본문 69쪽

- 01 (1) 관점 (2) 해석 (3) 근거 02 (1) 선비 교육 (2) 저항성 (3)
독립투사 03 (1) ㉠ (2) ㉡ (3) ㉢ (4) ㉣ 04 해방된 조국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70~71쪽

- 01 ③ 02 ⑤ 03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 04 ③
05 ④ 06 손님을 맞이하는 화자의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준비를 뜻한다. 07 ④ 08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곧은 투
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 01 (나)~(라)는 이육사가 자라 온 환경과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시 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다.
- 02 (나)~(라)는 비평문으로 작품의 구조나 효과, 작가의
창작 방법이나 세계관 등을 검토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 03 퇴계의 가르침을 좇으며 선비 교육을 실천하는 마을에
서 자라난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독립투사의 길로 나서
게 되었다.
- 04 이육사의 삶과 (가)의 주제를 고려할 때 '고달픈 몸'이
라고 표현한 것은 조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고, 해방을
위해 투쟁하였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이 글은 시 <청포도>의 각 연에 담겨 있는 내용과 시인
의 삶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다. 시와 관련된 독
자의 경험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6 깨끗하고 경건한 느낌을 주는 하얀색 모시 수건과 귀한
은쟁반은 손님을 위한 시적 화자의 정성과 예우를 의미
한다.
- 07 ㉠에서는 작품 자체를 근거로 시의 구조적 효과를 파악
하고 있고, ㉣에서도 작품 자체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
를 언급하고 있다.
- 08 이 글의 글쓴이는 시 <청포도>를 '꽃'에 빗대어 독립투
사로 살았던 시인의 삶 속에서 탄생한 작품임을 나타내
고 있다.

더 읽어 보기 예상 문제

본문 72~73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커다란 나무 이파리를 가지
고 와 굴을 막았어요.

- 01 (가)~(마)는 빛 공해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기사
문이고, (바)~(사)는 기존의 작품을 재구성하여 때에
맞게 빛을 적절하게 비추어야 함을 나타낸 동화이다.
- 02 변화가처럼 인공조명이 많은 곳일수록 빛 공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된다. 이는 동식물 모두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03 (라)에서 빛 공해가 모든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그 피해의 예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라)의 뒤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 04 (바)~(사)를 통해 환한 불빛은 화려한 도시의 상징이나 지나치게 많은 빛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밝은 빛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도시 쥐를 위해 시골 쥐는 나무 이파리로 빛을 차단하고 있다.

대단원 **예상** 문제

본문 74~76쪽

01 ② 02 ⑤ 03 화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여러 시각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등 04 ② 05 ③ 06 ④ 07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조국의 해방을 기다리는 마음 08 ⑤ 09 ④ 10 ⑤ 11 ② 12 낮과 밤에 맞게 빛을 비추자./생체 리듬에 맞도록 빛을 사용하자.

- 01 (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을 들어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02 (나), (라)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 까닭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 (다)는 잇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3 같은 화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화제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 04 색이 다른 글자들은 사람들이 지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05 (가)에는 이육사가 독립투사로 자라나게 된 성장 배경이 담겨있다.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청포도'는 해방 이후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6 (다)에서는 잔잔한 바다 위로 돛단배가 '내가 바라는 손님'을 태우고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07 (가)~(라)는 이육사 시인의 삶을 근거로 하여 시 <청포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 08 <보기>는 화자의 상황과 시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길'을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노력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다.
- 09 (가)는 빛 공해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기사문이고, (나)는 쥐를 의인화하여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이다.
- 10 <보기>의 광고문은 짧은 시간에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화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11 ㉠은 '빛 공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도시 쥐는 빛 공해로 인해 잠들지 못하였으나 시골 쥐의 기지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 12 (가)는 빛 공해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언급하며 낮과 밤의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기 위해 빛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대단원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문 77~78쪽

01 (가)는 잇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잇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공적인 정보들까지 삭제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02 ㉠: 이제는 지우고 싶어요/지울 수 있는 자유 등, ㉡: 이제는 보장받아야 합니다./잊고 싶은 과거를 잊게 해 줍니다. 등

03 (나)는 이육사의 삶을 근거로 시의 주제를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이라고 보았고 <보기>는 시에 드러난 표현과 시어가 주는 느낌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세계에서 누군가를 맞이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보았다.

04 희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다. 대학에 다시 입학하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다)의 화자가 향하고 있는 '숲, 마을'은 어머니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길'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다./희나는 어머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의 주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임을 밝힌 경우	2점	4점
㉠의 내용을 포함하여 쓴 경우	2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조건 1>에 맞게 적절히 쓴 경우	2점	4점
<조건 2>에 맞게 적절히 쓴 경우	2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시 <청포도>의 주제를 적절히 밝힌 경우	각 2점	8점
해석의 근거를 적절히 밝힌 경우	각 2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다)의 주제를 적절히 쓴 경우	2점	4점
해석의 근거를 적절히 쓴 경우	2점	

5. 주장과 토론

(1) 주장하는 글 쓰기

5분 테스트

본문 80쪽

- 01 (1) 연관성 (2) 객관적 (3) 신뢰 02 (1) ㉠ (2) ㉡ (3) ㉢, ㉣
03 (1) × (2) × (3) ○ 04 (1) ㉤ (2) ㉥ (3) ㉦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81~82쪽

- 01 ㉢ 02 ㉡ 03 ㉡ 04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같은 청소년끼리도 대화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05 ㉢ 06 ㉢ 07 ㉤ 08 ㉣

01 이 글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을 가진 글이다. 개인의 사례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여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에서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였으나 신조어의 전망이나 발전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03 (나)에서는 ㉠을, (다)에서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이 글의 주장에 해당하고, ㉢과 ㉣은 근거로 삼기에 주장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04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신조어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가)에서 신조어의 특징 중 하나가 짧게 줄여서 표현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어학자의 말은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여 언어가 단순해지면 사고력도 단순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06 어떤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정하고 다양한 입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며 내용을 조직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글을 써야 한다.

07 (라)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08 (나)의 설문 조사 결과는 어린 세대에서 신조어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토론하기

5분 테스트

본문 84쪽

- 01 (1) 입론 (2) 오류 (3) 논제 02 (1) ㉠ (2) ㉡ (3) ㉢ 03 (1) ○ (2) × (3) × 04 (1) ㉣, ㉤, ㉥ (2) ㉦, ㉧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85~86쪽

01 ④ 02 ② 03 ㉠: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 ⑤ 05 ④ 06 (다). 여러 동물원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일부 동물원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07 최종 변론 08 ④

- 01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④는 토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 02 ㉠, ㉡는 (가)에 제시되어 있고, ㉢는 (나)~(마)를 통해 알 수 있다
- 03 (나)에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근거, (다)에는 반대 측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 04 (다)를 통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갇혀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5 (나)는 반대 측의 주장이므로 이를 반박하고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06 <보기>는 (다)에 제시된 찬성 측 주장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다.
- 07 최종 변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한다.
- 08 반론, 반박 때에는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더 읽어 보기 예상 문제

본문 87~88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④

- 01 신하들은 '다리'의 폐단을 인식하여 다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나 '다리 금지를 먼저 할지', '다리를 대신 할 물건을 정하고 다리를 금지할지'에 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02 이재간은 다리의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성원은 다리의 폐단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유린과 이병모는 금지령을 내리기 전에 다리를 대신할 물건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03 체제공은 다리를 대신할 물건에 대한 논의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다며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선 다리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04 이재간은 선왕을 언급하며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정창순은 다리가 부인의 복식과 법도에 관한 것이므로 사람마다 달리 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 05 이 글에서 '강구하다'는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대단원 예상 문제

본문 89~91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⑤ 07 ⑤ 08 ⑤ 09 ③

- 01 (가)와 (라)를 통해 신조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알 수 있다. 신조어는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 02 이 글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로 신조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3 (다)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신조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 등의 심리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04 이 글은 토론문이다. 논제는 하나의 주장만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로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⑤는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토의의 주제로 적합하며, ①, ③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의 글에 적합하다.
- 05 반대 측의 반론을 반박하려면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

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멸종 위기 동물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06 <보기>는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말들을 예로 들고 있다. (라)는 동물원에서 점차 야생성을 잃어 가는 동물들의 예, (마)는 동물원이 종 보전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 07 ㉠에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는 찬성 측의 근거이다.
- 08 (다)~(라)를 통해 동물원의 필요성에 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 ㉣는 찬성 측의 입장, ㉡, ㉢은 반대 측의 입장이다.
- 09 토론에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대단원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문 92~93쪽

- 01 ㉠: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음. ㉡: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함.
- 02 누리 소통망(SNS)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왜곡된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가질 수 있다. 등
- 03 (가)에서 찬성 측은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나)에서 반대 측은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든 곳이며 동물원의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들어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는 자기 측의 기본적인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
- 04 여러 동물원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일부 동물원의 사례에 불과하다./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야생의 환경과 같을 수는 없다./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해도 동물들이 우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등
- 05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났는가?/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상대측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였는가?/말의 빠르기나 목소리의 크기가 적절하였는가?/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가? 등

01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 (다)의 중심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우	2점	4점
㉡ (가)~(라)의 주장을 적절히 쓴 경우	2점	

02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각 2점	7점
세 가지 이상 쓴 경우	1점	

03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토론의 절차를 적절히 밝힌 경우	1점	4점
(가), (나)를 활용하여 쓴 경우	1점	
입론에서 토론자가 제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적절히 쓴 경우	2점	

04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다)를 반대 측의 입장에서 적절히 반박한 경우	2점	3점
(나)의 주장을 유지하여 쓴 경우	1점	

05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토론 결과를 판정할 기준을 적절히 쓴 경우	각 1점	5점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점	

01 ① 02 ⑤ 03 ㉠은 무의미한 존재, ㉡은 의미 있는 존재로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04 ⑤ 05 ⑤ 06 ② 07 '그'는 최고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예술가들처럼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존심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08 ④ 09 ④ 10 우호적이다./긍정적이다. 11 ① 12 ⑤ 13 ㉠: 시계 ㉡: 달력 14 ① 15 ③ 16 ① 17 ③ 18 ④ 19 ③ 20 ① 21 ③ 22 ⑤ 23 ② 24 ④ 25 ㉠: 표기함, ㉡: 두음 법칙, ㉢: 의존 명사를 붙여 씀. 26 ② 27 ⑤

- 01 시의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 02 4연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03 ㉠은 이름을 부르기 전의 무의미한 존재를 뜻하고, ㉡은 이름을 부르고 난 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 04 ㉢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부분은 ⑤이다.
- 05 (마)에는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그'의 태도와, 그러한 '그'를 예술가라고 평하는 '나'의 시각이 드러난다.
- 06 '나'가 그이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오로지 만드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맛이 환상적이기 때문이다.
- 07 (마)를 통해 좋은 상품만을 골라 팔고 있다는 '그'의 말에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 08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속에서 김대호 씨를 관찰한 내용을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덧붙여 가며 서술하고 있다.
- 09 키가 큰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길도 길다는 말을 통해 김대호 씨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10 김대호 씨와 같은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에서 '나'

가 김대호 씨를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김대호 씨의 느리지만 성실한 모습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 12 (마)에는 달력과 시계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을 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3 글쓴이는 '시계'와 '달력'을 대비하여 달력에 담긴 마음, 즉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 14 ㉠은 욕심을 부려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을 의미한다. 커피 농장에 노동력을 더 투입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나 이를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5 어떤 매체에 글을 쓸 것인지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지만, 완성한 글을 매체에 수록하는 방법은 쓰기 과정의 문제와 거리가 멀다.
- 16 이 글은 청산도의 '슬로길'을 소개하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글이다.
- 17 (다)에서는 슬로길을 다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 주고 있다.
- 18 (라)는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내용이므로 (라)의 뒤에 1, 4, 5번 코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9 ①은 형태소, ②는 어휘, ③은 음운, ④는 단어, ⑤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 20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 변화 여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나누고,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나 최고점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혀의 모양은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21 ㉠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터뜨리며 소리 내는 파열음, ㉡은 통로를 좁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 내는 마찰음, ㉢은 공기의 흐름을 막

았다가 틈을 조금 열어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 내는 파찰음이다.

- 22 ‘말’의 끝소리인 유음 ‘ㄹ’은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 23 ‘사과’는 잇몸소리 ‘ㅅ’과 여린입천장소리 ‘ㄱ’, 평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고 저모음인 단모음 ‘ㅏ’가 모두 쓰인 단어이다.
- 24 <보기>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교체하여 짝지는 단어들이다.
- 25 ‘리용’은 ‘이용’을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한 것이다.
- 26 ‘가마치’, ‘계사니’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손기척’, ‘밥공장’은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에 해당한다.
- 27 이 대화는 남북한 대화 방식, 즉 언어문화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남북한의 맞춤법을 연구하여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치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한다.

- 03 4연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므로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없다.
- 04 <보기>의 밑줄 친 ‘한 마리 여우’는 길들여지기 전의 존재로, 수없이 다른 많은 여우와 다를 바 없는 존재, 즉 특별할 것 없는 존재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이름을 부르기 전의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하는 ㉠ ‘뭉짓’이다.
- 05 모방시를 쓸 때에는 원작과 연관 지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이 구상한 시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시어를 바꾸어 쓸 수 있다.
- 06 이 글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을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소설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07 김대호 씨는 느리지만 잔피를 부릴 줄 모르고 진득하게 일을 처리하여 실수가 없다.
- 08 (가)의 ‘그이’는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하여 환상적인 맛의 김밥을 만들어 내고 있고, (나)의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다. 이는 둘 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실전 모의고사 | 중간고사 2회

본문 100~105쪽

01 ㉢ 02 ‘나’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03 ㉣ 04 ㉠ 05 ㉢ 06 ㉤ 07 ㉤ 08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술가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09 ㉡ 10 ㉠ 11 ㉢ 12 ㉢ 13 ㉤ 14 ㉤ 15 1, 4번 코스는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고, 5번 코스에는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1, 4, 5번 코스를 추천했다. 16 ㉢ 17 ㉡ 18 ㉢ 19 ㉠ 20 ㉢ 21 찰리가 된소리 ‘ㅍ’을 거센소리 ‘ㅑ’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이다. 22 ㉤ 23 ㉠ 24 (다):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라):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 (마): 분단 이후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 25 ㉡

- 01 이 시에서 화자가 ‘그’의 이름을 부른 후에 ‘그’가 ‘꽃’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화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지,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이 시에서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

- 09 이 글에서는 환상적인 맛의 김밥을 만드는 ‘그이’, 자신이 파는 물건에 자부심이 있는 ‘그’, 느리지만 낙천적인 ‘김대호 씨’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전하고 있다.
- 10 ㉠은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 11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소 떼를 인위적으로 늘린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 12 공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을 투자해 기계를 돌린 만큼 물건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무리하게 자원을 확보하

고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변화시켰다.

- 13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블로그는 글의 길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 14 (나)에서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있다.
- 15 지우는 일부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나)에서 밝히고 있다.
- 16 이 글은 지우가 블로그에 올린 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슬로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독자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 17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은 단모음, 전설 모음, 중모음, 평순 모음으로 'ㄴ'이 이에 해당한다. ① 'ㅞ'와 ④ 'ㄴ'은 이중 모음이다. ② 'ㄱ'은 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이고, ⑤ 'ㅣ'는 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이다.
- 19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 'ㅁ, ㅂ, ㅃ, ㅍ',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잇몸소리 'ㄴ, ㄷ, ㄸ, ㄹ, ㅌ, ㅍ, ㅆ', 혀바닥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셴입천장소리 'ㅈ, ㅉ, ㅊ',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 'ㄱ, ㅋ, ㆁ',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 'ㅎ'으로 나뉜다.
- 20 <보기>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 내는 파열음에 대한 설명으로, 자음 중에서 'ㄱ, ㅋ, ㄷ, ㅌ, ㅂ, ㅃ, ㅋ, ㅌ, ㅍ'가 파열음에 해당한다. ①의 'ㅍ'과 ⑤의 'ㅎ'은 마찰음이다. ②의 'ㅊ'은 파찰음이다. ④의 'ㄹ'은 유음이다.
- 21 한국 사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서로 다른 소리로 구별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찰리도 된소리 'ㅆ'와 거센소리 'ㅊ'을 구별하지 못하고 'ㅆ'를 'ㅊ'로 발음한 것이다.
- 22 ㉠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라는 뜻의 '눈', ㉡ '생물체의 전신이

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는 뜻의 '병'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 23 북한은 분단 초기에는 남한과 같이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1966년 평양말을 표준으로 한 문화어를 제정·보급하였다.
- 24 북한에서 문화어를 제정하고 보급한 이후 남한과 북한의 어휘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 25 남한의 어휘를 무조건 순우리말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남북한이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 중간고사 3회 |

본문 106~111쪽

- 01 ⑤ 02 ③ 03 ⑤ 04 하나의 몸짓 05 (1) 이름 부르기
 (2) 길들인다(길들이기) 06 ① 07 ② 08 ② 09 ② 10
 ③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1)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2) 입술의 모양 19 ⑤ 20 땅
 21 ① 22 ⑤ 23 ⑤ 24 ⑤ 25 ①

- 01 이 시에서 '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 02 2연에서는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 03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빛깔과 향기'는 '나'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꽃, 무엇, 하나의 눈짓'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대비되는 의미의 시구는 '하나의 몸짓'이다.
- 05 이 시에서는 '이름 부르기'를 통해 무의미한 존재였던 '그'가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된다. (나)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에서 '길들인다'는 것은 이 시의 '이름 부르기'와 유사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06 이 글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을 제재로 한 현대 소설이다. 어떤 사람의 생애나 업적을 다룬 글은 전기문이다.
- 07 (가)~(나)를 통해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쟁이’들로 인해 ‘나’가 동네를 떠나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길모퉁이’는 ‘길이 구부러지거나 꺾여 돌아가는 자리’라는 뜻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을 의미하는 제목임을 알 수 있다.
- 09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간을 들인 만큼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시계를 중시하고 자연을 다투기 시작했다.
- 10 ㉠은 공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시계를 중시하게 되었고 농사에서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11 ①, ③, ④, ⑤는 ‘달력’,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과 관련이 있다. ②는 ‘시계’,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기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삶과 관련된다.
- 12 (다)는 슬로길 5번 코스의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장미미 해변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들장논에 관해서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거나 관련 누리집을 연결하여 보충할 수 있다.
- 13 적절한 표현 방법을 고민하여 글을 쓰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14 글쓰이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 15 ②~⑤에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①에는 단모음만 제시되어 있다.
- 16 ‘성인’은 평순 모음 ‘ㄱ, ㄴ’와 마찰음 ‘ㅅ’, 비음 ‘ㄴ, 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의 의미인 ‘성인’은 [성인]으로 짧게 발음한다.
- 17 ① 모음이 21개, 자음이 19개이다. ② 소리의 길이는 음운의 역할을 한다. ③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그 자체로는 뜻을 갖고 있지 않다. ⑤ 자음에 대한 설명이다.
- 18 ㉠은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지 않는 모음이며, ㉡은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는 모음이다.
- 19 ①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②, ④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③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셴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뉜다. ⑤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 20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이며 된소리인 자음은 ‘ㄸ’이다. 후설 모음이자 저모음이고 평순 모음인 모음은 ‘ㅏ’이다. 여린입천장소리이자 비음인 자음은 ‘ㅇ’이다.
- 21 ①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의성어, 모양이나 움직임 흉내 낸 말은 의태어이다. ② 음성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③ ‘ㄱ’는 중모음, ‘ㄴ’는 고모음이다. ④ 된소리나 거센소리이다. ⑤ ‘예사소리’가 들어갈 부분이므로 ‘감 감’을 예로 제시할 수 있다.
- 22 (나)에 제시된 문장은 남북한의 맞춤법이 사이시옷 표기 여부, 두음 법칙 인정 여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 23 ‘문지기’는 외래어 ‘골키퍼’를 북한에서 다듬어 쓰는 말이므로 (마)와 관련된다.
- 24 ㉠은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로 (라)에 해당하고, ㉡은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로 (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로 (다)에 해당한다.
- 25 남북한이 서로 다른 맞춤법 규정을 유지하면 그 차이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연구와 협의를 통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5 ⑤ 06 ⑤ 07 ③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②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⑤

- 01 ‘잇힐 권리의 법제화’라는 같은 화제를 두고 (가)~(나)는 긍정적인 관점, (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라)에 법제화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2 (다)~(라)의 글쓴이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03 잇힐 권리를 법제화해도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함부로 삭제하기 어려운데, 이때 게시물이 공적 정보인지 사적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힘들 수 있다.
- 04 (나)에서는 이육사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투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포도>가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말하고 있다.
- 05 5연에서 그날의 잔치를 상상한 화자는 6연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 06 (나)를 통해 이육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나아가 싸우는 독립투사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청포도>라는 시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육사가 시를 통해 더 많은 애국지사가 등장하기를 바랐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7 시가 발표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손님’은 ‘우리나라의 해방’으로 볼 수 있다.
- 08 <보기>의 독자는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 09 (다)에서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쓰면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10 (가)에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 (다), (라)에서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며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11 (라)에서는 국어학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근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12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전문어 사용은 독자의 내용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13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둔 토의와 달리 토론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기 측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 14 토론의 논제는 찬반이 엇비슷하고 예상되는 쟁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토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 좋다.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화제는 토의 주제로 적절하다.
- 15 (나)는 찬성 측이 자기 측의 기본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입론 단계이다.
- 16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박은 상대측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자기 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단계이다.
- 17 (다)에서 반대 측이 동물원에는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들도 많다고 한 것을 참고할 때 동물원의 설립 목적이 멸종 위기 동물 보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8 (다)에서 반대 측은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여 자기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19 최종 변론에서 찬반 양측의 토론자는 논제를 중심으로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② 07 청포도
 08 ③ 09 ① 10 ④ 11 ③ 12 ㉞: 무분별하게 신조어를 사
 용하지 말아야 한다 ㉟: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외감
 을 줄 수 있기/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기 13 학교 운동
 장을 개방하지 말자./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14 ③
 15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 ㉠: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6 ② 17
 ⑤ 18 ④ 19 ㉟: 동물원은 다양한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 힘써
 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다./동물원은 지구상에 다
 양한 동물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다. ㉞: 멸종
 위기 동물은 동물 보호 전문 기관에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
 다. 20 ③ 21 ⑤

- 01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하여 (가)는 긍정적인 입장, (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02 악의적인 개인 정보 유포나 허위 사실의 확대·재생산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 03 (나)~(다)의 글쓴이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인 정치인의 선출과 관련한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04 (나)~(다)는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③은 잇힐 권리를 빨리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다.
- 05 이 글은 시 〈청포도〉를 다룬 비평문으로 시상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 06 (나)에서 ‘손님’이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고 한 것이나 (마)에서 이육사 시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독립투사였던 이육사 시인의 삶을 근거로 시를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 07 마을의 역사와 전설이 담겨 있고,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박혀 있는 청포도의 푸른색은 하얀 모시나 은쟁반의 흰색과 대비된다.
- 08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오는 날의 정경으로, 소망하던 때가 왔음을 보여 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시

구는 ③이다.

- 09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에는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논리성, 적절성, 연관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근거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지 출처 자체가 다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0 이 글은 무분별하게 신조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드러낸 글로, 신조어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 11 어른 세대는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함을 보여 주는 (나)의 조사 결과를 통해, 신조어 사용이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 12 글쓴이는 소외감 유발, 어휘력과 사고력 저하 등을 근거로 들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13 학교 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자료로 보아 운동장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4 토론은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말하기이다. 논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토의이다.
- 15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찬반을 토론하고 있다. 근거의 내용으로 보아 ㉠에는 찬성 측 주장이 ㉡에는 반대 측 주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동물원이 필요한 이유로 교육적 효과, 멸종 동물의 보호,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17 채아가 제시하려는 근거는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타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 18 양측의 입론이 끝나면 반대 측이 찬성 측 입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순서가 진행된다.
- 19 최종 변론은 반론과 반박에서 내세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를 한 번 더 정리하는 단계이다.

- 20 동물원을 유지하되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원의 운영 방식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㉓이 적절하다.
- 21 논제는 토론의 시작 전에 정하는 것으로 배심원의 평가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실전 모의고사 | 기말고사 3회 |

본문 122~126쪽

01 ㉓ 02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민호'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03 ㉓ 04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 05 ㉔ 06 ㉕ 07 ㉔ 08 ㉓ 09 ㉓ 10 ㉔ 11 ㉕ 12 ㉔ 13 ㉕ 14 ㉕ 15 ㉔ 16 ㉓ 17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8 ㉕

- 01 <보기>는 잇힐 권리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잇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다) 역시 부정적인 관점이고, (가), (라)는 긍정적인 관점이다.
- 02 (나)에 제시된 예에서 '정수'는 자신의 잇힐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나 이는 '민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03 제시된 광고문에서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하여 잇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 ㉓은 (가)~(라)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 04 (나)~(마)의 글쓴이는 일제와 맞서 싸우는 투쟁의 삶을 살았던 이육사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다.
- 05 (나)에서 이육사의 삶이 고통스러운 길이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다고 했으며 <청포도>에서는 '기다리던 손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과 믿음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 06 (나)~(마)와 ㉕는 시인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 07 작품 내용과 관련된 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가)는 서론, (나)~(라)는 본론, (마)는 결론에 해당한다.
- 09 ㉔의 앞뒤 문장 모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등을 쓸 수 있다.
- 10 ㉑은 (마)에 대한 설명, ㉓은 (라)에 대한 설명, ㉔는 (나)~(라)와 (마)에 대한 설명, ㉕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 11 (가)~(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조어 사용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 12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자기 측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 13 배심원들도 토론 전 논제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찬반 양측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조사하거나 생각해 두어야 한다.
- 14 (나)는 찬성 측의 입론으로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반대 측은 반론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15 (다)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원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이다. ㉔는 이미 찬성 측에서 언급한 부분이므로 반대 측이 반박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 16 ㉔는 논제, ㉔는 입론, ㉕는 최종 변론에 대한 설명이다.
- 17 (마)에는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 18 토론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토론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질문하는 것은 상대측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